



[산업] LG 'G7 씽큐' 예판 이통시장 불황 타개책 될까 04



Economy

코스피	2477.71 (변동없음)	코스닥	865.93 (변동없음)
금리 (국고채 3년)	2.29 (+0.01)	환율 (원-달러)	1069.30 (-3.80) (11월)

# 국민 혈세로 GM 8천억 지원... '먹튀 노잣돈' 논란

## GM GM 먹튀논란

〈上〉 부실지원 우려

작년 순손실 1.1조 달해 출자금 배당 못 받을지도

한국지엠(GM)이 국민의 세금 예다 우리 정부 및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자금투입 등을 발판 삼아 내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잡았지만 정상궤도에 접어들 때까지 상당한 난제들이 남아있다. 여기에 국민의 혈세로 한국GM을 지원하지만 GM이 돈 잔치만 즐기고 '먹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오는 18일 GM 본사와 기본계약서를 맺는다. 올해 안에 한국GM 정상화에 7억5000만달러(8000억원)를 출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먹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혈세 '먹튀' 가능성

한국GM의 지분율은 GM이 83%, 산업은행이 17%다. 양측은



노조원들 항의 받는 배리 앵글 사장. /연합뉴스

이 지분율에 따라 한국GM에 '뉴머니'를 넣기로 했다. GM이 36억달러(3조9000억원), 산업은행이 7억5000만달러(8000억원)다. 산업은행은 8000억원을 한국GM의 시설투자 용도로 출자한다. 출자인 만큼,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지만 현재까지 한국GM은 적자기업이다. 실제 한국GM은 국내 판매와 수출 물량 하락으로 2014년 1000억원의 영업손실, 3000억원 당기순손실 기록했으며 이같은 손실은 고스란히 한국GM이 물려받았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는 점이다. 한국GM은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액이 10조6972억원, 영업이익 -8562억원, 당기순이익 -1조1598억원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출자금을 날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한국GM의 모태가 되는 GM의 치열한 생존 방식도 문제다. GM의 경우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경영악화로 2009년 6월 1일 파산 신청했다. 미국 정부 소유의 공기업으로 바뀌면서 지배구조의 상당수는 미국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GM은 본사의 경영악화로 인도에서 철수했다. 러시아와 서유럽, 동남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지에서 공장을 축소 또는 폐쇄한 상태다. 이는 중국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이들 나라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2017년에는 오렐을 PSA그룹에 매각하는 등 자사의 계열 브랜드들을 하나씩 팔아넘기거나 철수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또 한국GM이 내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잡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한국GM의 판매 감소로 붕괴된 영업망 복구 작업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1년간 문을 닫은 한국GM 대리점은 20여곳으로 이탈한 영업사원만 800여명에 달한다. 현재 남아있는 대리점과 영업사원은 각각 280여곳·270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들어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13일 "GM은 이미 6~7년 전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이번 협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단물'을 더 빨아먹고, 나중에 될 때 산업은행이 쏟아부은 혈세 8000억원은 '노잣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양성은 기자 ysw@metroseoul.co.kr



'1층부터 123층까지' 수직 마라톤대회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수직마라톤대회 스카이런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목표지점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국제수직마라톤협회(ISF)가 공식인정한 대회 중 가장 높은 555m로 참가 선수들은 1층부터 123층까지 2917개의 계단을 뛰어오른다. /연합뉴스

# 무리한 투자·횡령... 커피업계 1세대들의 몰락

탐앤탐스, 자금횡령 의혹 검찰서 본사 등 압수수색

카페베네, 무리한 업종확대 부채 1500억... 경영난 심화



국내 토종 커피업계 1세대들이 몰락하고 있다. 포화상태에 따른 과당경쟁, 무리한 투자, 횡령 등으로 내리막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미다스의 손' '커피왕'이란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다.

13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 검사)는 지난 11일 회사 대표의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커피전문점 탐앤탐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탐앤탐스는 국내 대표 1세대 토종 커피 브랜드로 꼽힌다. 2001년 시작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탐앤탐스는 국내외에 400여개 가맹 매장을 두고 있다.

검찰은 김도균 대표가 경영 과정에서 회사 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탐앤탐스는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경영권을 쥔 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서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커피시장을 선도하고, 스타벅스를 위협하던 1세대 토종 커피 브랜드들도 생존 위기에 몰렸다.

'카페베네' 창업주인 김선권 전 대표는 8년 만에 회사를 떠났다.

김 전 대표가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매장을 10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토종 커피전문점의 신화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경쟁업체 증가에 따른 실적부진과 이탈리아 레스토랑 블랙스미스, 베이커리 마인츠돔, 드러그스토어인 디셈버24 등을 열었으나 경영난이 심화됐다. 지난 2014년 부채는 무려 약 1500억원에 달했고, 이후 사모펀드 K3파트너스, 한류벤처스에 인수됐다. 최승우 대표가 취임하고 550억원의 신규투자를 결정했지만 경영난에서는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故) 강훈 전 대표도 1세대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1992년 신세계백화점 공채로 입사했다. 1997년 스타벅스커피테스크포스(TF)로 활동했다. 이후 회사를 나

와 김도균 대표와 1998년 국내 최초의 카페 프랜차이즈인 할리스커피를 창업했다. 2003년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현 CJ E&M)에 할리스커피를 매각한 뒤, 김선권 전 대표와 카페베네의 신화를 이루는데 크게 일조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카페 전문점과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가맹점 수익이 떨어지고, 브랜드 차별화에도 실패하면서 상황은 어려워졌다.

1세대 토종 브랜드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대기업 커피전문점들은 성장을 거듭했다. 스타벅스커피의 지난해 매출 1조 2634억원, 영업이익 1144억원을 기록했다. CJ푸드빌의 투썸플레이스도 전국에 1000여개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확고한 시장지위를 가지고 있다.

/박인용기자 parki7854@

# 내년 하반기 상암DMC에 무인자율주행버스 달린다

C-ITS 구축 대상지로 선정 세계최초 테스트베드 구축

서울 상암DMC가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달리는 '자율협력주행' 기술의 시험 무대가 된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사업' 대상지로 상암DMC를 선정하고 오는 2019년까지 실제 도로 공간을 5단계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시험할 테스트베드(고도 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로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고도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는 도로 인프라에 감지센서와 초고속 통신망을 촘촘하게 설치해 차량-도로인프라, 차량-차량 간 다양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도로환경이다. 시는 이곳을 어떤 차량통신망을 쓰더라도 실증 가능한 세계 최초의 테스트베드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해의 자율주행차량 사고는 야간이나 안개 등 상황에서 차량 센서를 통한 영상분석으로 신호등이나 사물정보를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V2X 기술은 자동차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

해 주행 중 교통인프라나 시설, 다른 차량 등과 무선통신을 통해 정보를 교환·공유할 수 있다.

교통 정보 전송에 쓰이는 5G 기술은 각종 위험정보를 0.1초 내 교환할 수 있는 저지연 고속 이동통신으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망 기술에는 KT가 참여한다.

시범지구에서 우회전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 역주행이나 급정지 차량, 낙하물 같은 돌발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차량과 도로에 설치된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변 차량에 제공한다. 시범지구 내 모든 운행상황은 교차로마다 설치된 CCTV를 통해 자율주행관제센터에서 빈틈없이 모니터링해 안전을 담보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범지구에는 각종 센서를 점검·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소와 휴게공간도 조성된다.

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암DMC 주요 거점 순환 '무인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무료운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6호선)을 기점으로 상암DMC 내 주요거점을 일 2~3회 순환하는 버스다. /이범중 기자 joker@

#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첫 걸음

23~25일 폐쇄 입장 밝혀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북한이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

를 통해 오는 23~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강도 폭파방식으로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

한 결정에서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이행하는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핵실험장의 폐쇄는 북한의 미

래핵을 제거하는 조치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핵실험을 해야만 하는데 이 실험을 하는 장소의 폐쇄로 이런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급변하는 생보사 M&A 판도... 동양·ING 누구 손에?

## 동양생명

업계 7위·매각가 1.2兆 매력도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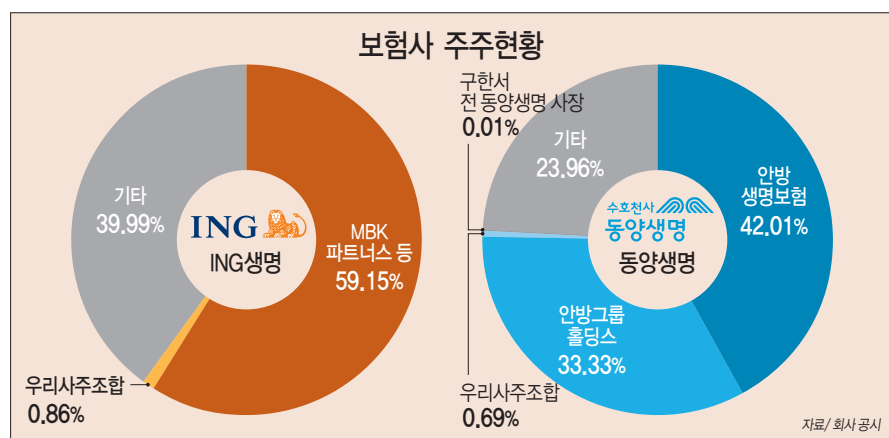
## ING생명

높은 몸값 난항... 시기 늦출 수도

중국 안방보험의 자회사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매각설'로 국내 생명보험사 인수합병(M&A) 시장의 썬밭이 복잡해졌다. 3조원에 이르는 높은 몸값으로 잠재 매수인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ING생명 매각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동양생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ING생명 못잖은 '매력적인' 매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현재 기업공개(IPO) 및 배당 등으로 과거 회사 인수자금을 대부분 회수한 대주주 MBK파트너스로선 ING생명 매각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안방보험을 위탁 경영 중인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



회는 최근 해외 계열사 매각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자회사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매각설이 흘러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안방그룹에 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회사의 잠재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자산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방보험의 국내 자회사인 동양생명과 ABL생명 역시 실사대상에 포함돼 잠재 매수자로 꼽히는 국내 금융지주사 등에 인수의 향을 묻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

된다"고 말했다.

### ◆동양생명 1조2000억원 vs ING생명 2조6000억원

안방보험은 과거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한 이후 이상증자 등 '차이나머니'를 무기로 회사 가치를 높여왔다.

실제 동양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30조2737억원의 업계 7위 생보사로 우뚝 섰다. 경쟁 매물로 꼽히는 ING생명의 자산(31조455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순이익 1844억원,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211.25%로 ING생명(3402억원·455.30%)에는 못미치지만 시장 인수가를 고려할 때 동양생명의 매력도가 충분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동양생명은 주식시장에서 7700원에 거래를 마감해 총 1조2425억원의 시가총액을 나타냈다. 안방 지분을 75% 등을 감안할 때 매각가는 1조2000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ING생명의 잠정 매각가인 2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시장의 관심을 살 만하다.

동양생명은 다만 최근 시장에서 거론되는 안방보험의 지분 매각설 등과 관련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은 공시를 통해 "현재 안방보험을 위탁경영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안방보험의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진행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 ◆시장 변화에... ING생명, 몸값 '고민'

동양생명이 이처럼 보다 낮은 매각가로 M&A 시장의 잠재 매물로 떠오르면서 ING생명을 매각하려던 MBK파트너스 로선 고민에 빠졌다. 인수를 타진하던 금

융지주사도 당장 ING생명의 높은 매각가를 걸림돌로 꼽아왔다.

ING생명 인수를 염두하고 있는 신한금융 관계자는 "ING생명과 협상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가격은 너무 높은 상황"이라며 "동양생명이 시장 매물로 나올 경우 '새 판'을 짜기 위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보사 M&A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던 MBK파트너스는 이 같은 변화에 연내 매각 철회도 고려할 전망이다.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로선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ING생명을 팔기에는 현재 대부분의 인수자금을 회수한 상황이기 때문. 그러나 올해 ING생명의 브랜드 사용권 한이 종료되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엇비슷한 자산규모의 보험사가 매물로 나올 경우 시장의 관심은 더 낮은 매각가를 부르는 보험사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며 "ING생명의 매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 한줄뉴스

▲ 서울 상암DMC가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달리는 '자율협력주행' 기술의 시험 무대가 된다.

▲ 지난 197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발효됐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1일부터 LG전자의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G7 씬큐(ThinQ)'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 KT가 아프리카 최초로 르완다에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에 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상장사들이 올해 첫 성적표(1분기 실적) 예상치가 장밋빛임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불안한 기만하다.

▲ 국내 금융시스템에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가계부채가 꼽혔다. 4·27 판문점 선언의 영향으로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위기감은 낮아졌다.

▲ 이번 주는 분양 성수기를 맞아 최대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17곳에서 총 1만1481가구(오피스텔, 임대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1순위 청약의 진행한다.

▲ 사드 해빙 분위기가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중국인 개별관광객(싼커) 유입이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건강보험공단과 의약 단체들이 수가(酬價)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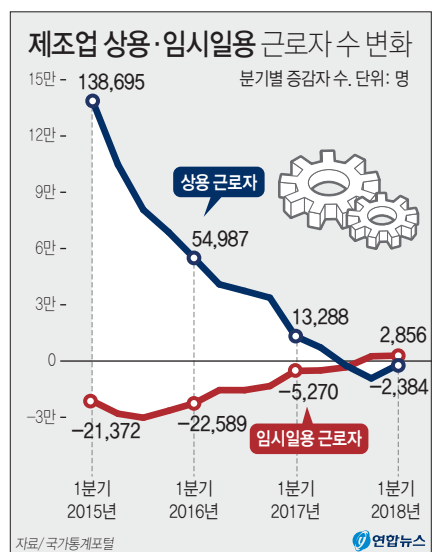
## 자동차·조선업 불황 여파... 일자리 감소

### 구조조정·산업 부진 영향으로 악화

자동차 및 조선업 등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철강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재직 중인 상용노동자 수는 제조업 분야의 경우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했다.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한 제조업 상용노동자 수는 지난해 3분기에 2394명이 줄었고, 작년 4분기에는 9257명이 줄었다. 올해 1분기 또한 2384명이 줄었다.

업종을 세분해 살펴보면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2015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상용 노동자가 11



분기 연속 줄어드는 등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와 차 수출 부진 등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이 우려

를 사는 가운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종사하는 상용 노동자도 1분기에 3523명 감소했다.

이밖에 1차 금속 제조업(-3130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5689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679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562명) 등에서도 1분기에 상용 노동자 수가 줄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제조업 체감경기가 악화된 이유로 전문가들은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이 흔들린 것을 주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 생산은 올해 들어 급감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생산감소세가 확대되면서 광공업 중 전달보다 생산이 줄어든 업종이 5개월째 절반 이상을 기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감소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광공업 생산이 감소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래 신산업의 환상에 시선을 두기보다는 현재 주력산업 위기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 단위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기초소재, 기계, IT, 자동차 등 현재 주력 산업을 근간으로 파생되기 때문에 주력산업의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력산업에 대해 지금보다 더 집중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산업정책의 무게중심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예와 같은 사후수습이 아니라 위기 가능성을 확인하고 예방하는데 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산업의 구조 변화로 만성적 수요 부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업의 기반붕괴 방지와 경쟁력 확충을 위해 산업 단위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OECD, 한국 경기전망 '경고등'

### 경기선행지수 40개월만에 100 아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경고 신호를 보냈다.

13일 OECD에 따르면 올해 2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99.8을 기록해 1월의 99.8에 이어 2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OECD는 한국은 행과 통계청의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 차, 수출입물가비율,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자본재 재고지수, 코스피 등 6개 지수를 활용해 이 지수를 산출한다. 통상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면 경기 하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상승 흐름인지 하강 흐름인지가 중요하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14년 10월 100.0으로 100을 넘어선 뒤 다소 등락을 거듭했지만 100 위에서 대체로 상승 흐름

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3~5월은 100.9를 석 달 연속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는 단 한 차례도 반등 없는 내리막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8→100.7→100.6→100.4→100.3→100.1→100.0→99.84→99.76으로 떨어졌다.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점도 우려스럽지만, 아홉 달 연속 하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뚜렷한 경고 신호로 볼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다른 국가들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한국이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 평균 경기선행지수는 2016년 7월 99.5로 바닥을 찍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작년 4월에 100.0을 넘어섰고, 최근까지 100.1~100.2를 오르내리며 순항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평균 경기선행지수도 2016년 7월 99.3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지난 2월 100.1까지 올라갔다. /세종=최신용 기자

## 혈세로 15만여개 일자리 지켜... '남는 장사'

### >> 1면 '국민 혈세로 GM 8천억...'서 계속

### ◆한국GM 지원금 '성격' 달라

문제는 GM과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돈의 성격이다. GM 본사는 지분율에 따른 뉴머니 중 28억달러(3조원)는 대출로, 8억달러(9000억원)는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로 투입한다. 산업은행은 7억5000만 달러를 한국GM 우선주에 신규 투자한다.

뉴머니만 놓고 보면 GM은 선순위인 대출, 산업은행은 후순위인 출자다. 맥튀론은 여기서 출발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를 '가성비론'으로 반박한다. '혈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8000억원을 투입하더라도 15만6000개의 일자리를 지킨다면 '남는 장사'라는 논리다.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은 "4인 가구로 치면 수십 만명 생계가 달렸다"며 "(협상 내내) 피가 말랐다"고 토로했다.

물론 반박 지점이 없지는 않다. 투입하는 돈은 공적 성격의 자금, 혜택받는 쪽은

외국계 사기업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산업생산,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전반위에 걸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효과가 한국GM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비토권, 지분매각 제한, 3조원 설비투자 15만6000개의 일자리를 10년 넘게 지킨다고 하지만,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GM이 약속을 어기면 소송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GM과 GM 본사의 한국 공장 이익 빼가기 우려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GM 본사와 한국GM 사이의 부품·완성차 거래 가격의 '이전가격'의 경우 '제삼자 가격' 방식, 즉 국제 교역에서 상품·서비스의 시장 가격이 조작성인지 평가하는 방법으로 따졌을 때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두루뭉술한 판단뿐이다. 90%를 넘는 매출원가율(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양성문 기자 ysw@



# 33조 부채탕감·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약자에 숨통

## 文정부 1년과 금융혁신

### 〈中〉 생산·포용적 금융 본래도

내주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 발표  
DTI 등 도입...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GM 등 기업들 구조조정 일단락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융분야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것은 바로 '포용적 금융'이다. 특히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은 더욱 강조됐다.

이전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는 없애고 무한기회를 열어주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이제는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업권을 막론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높은 금리나 수수료는 더 이상 설자리를 잃었다.

### ◆ 포용적·생산적 금융 본격 가동

금융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기본 골격은 생산적·포용적 금융이다.

가장 먼저 지난해 7월 말부터 카드수수료는 내렸고, 총 33조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부채탕감)이 완료되는 등 포용적 금융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계획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 최고 금리는 24%로 낮아졌고, 금융 약자인 소비자를 위해 연체가산금리와 실손보험료 인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등도 줄줄이 시행됐다.

생산적 금융은 올해 들어 본격화됐다. 금융 본연의 역할인 자금증개기능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3월 출범시켰고, 4월에는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에 따라 2조1000억원 수준의 코스닥벤처펀드가 조성되는 등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확대됐다.

다음주에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

략'이 확정, 발표된다.

생산적인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가계부채를 줄이는 작업도 병행됐다.

정부는 작년 10월, 11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고, 신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자본규제 개편방안으로 금

용회사의 과도한 가계금융 취급유인을 억제했다.

### ◆ 구조조정, '응급조치'는 마무리

KDB산업은행은 지난 11일 GM 측에 법적구속력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했다. 오는 18일에는 GM과 기본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금호타이어는 중국더블스타로부터 자본을 유지했다. 중견조선사는 향후 회생가능성을 고려해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운명이 갈렸다. STX조선은 경영정상화로,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로 돌입했다. 한국GM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우리 정부와 GM 본사가 총 71억5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견조선사나 금호타이어에 이어 흔들림없이 구조조정 원칙을 세움으로써 시장에 분명하고 일관성있는 메시지를 준 것이 긍정적"이라

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서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으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고, 아직까지는 원칙을 지켜냈다.

응급조치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는 지속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중추장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옥석가리기'를 통해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혁신기업의 출현을 유도하는 등 경제시스템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업종에 대한 산업진단을 통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정중동 속 글로벌경영 집중

### JY, 경영복귀 100일

"묵묵하게 일 하면 인정받을 것  
어수선해도 할일 꾸준히 할 것"

오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지 100일이 된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빠른 경영 복귀를 예상했다. 하지만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속되는 검찰 수사와 각종 의혹 제기 등에 이 부회장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며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5일 석방된 이후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최근 임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묵묵하게 일을 해나가면 언젠가는 삼성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 안팎이 어수선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실천하듯 이 부회장은 삼성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말 유럽과 캐나다를 방문한 이후 한 달 만에 중국과 일본을 찾았다. 이 부회장의 다음 행보는 오는 7월 미국에서 열리는 '선벨리컨퍼런스'가 유력시된다. 미국의 대표 휴양지 선벨리에서 열리는 선벨리컨퍼런스로 불리는 이 행사는 미국 투자은행인 앨런앤드컴퍼니가 198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02년부터 15년간 매년 참가해왔지만 지난해는 구속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순환출자와 금산분리도 이 부회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현재 공정위와 금융위는 순환출자 고리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을 이 부회장이 타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기와 삼성화재 등 계열사의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해 순환출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삼성SDI는 지난달 10일 삼성물산 지분 404만주(2.11%)를 장 마감 이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을 통해 매각했다.

이로써 삼성그룹에 남아있는 순환출자 고리는 7개에서 4개로 줄었다. 삼성전기(2.64%)와 삼성화재(1.38%)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하면 순환출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그러나 남아있는 출자 고리 해소는 금산분리와 연계된 보험업법 개정 문제가 걸려 있어 삼성도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보험업법 중 일부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보험사의 주식보유 제한 기준을 기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8.19%, 1.43% 보유했다.

이 같은 이유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내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회동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해결을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 부회장을 압박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역시 지배구조를 바꿀 의지가 있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한국인의 true friend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6-05190호 (2016-10-1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1059호 (2017-10-12~2018-10-11)

[ 헤아리다 ]

고객의 마음이 되어봅니다  
금융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깊은 맛과 향을 우려내려면  
알맞은 온도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금융에 깊이를 더하는 일은  
고객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고객을 향한 바른 마음가짐으로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의 바른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 LG 'G7 씩큐' 예판 시작... 이통시장 불황 타개책 될까

5월 성수기·다양한 마케팅 혜택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등판 활기 기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1일부터 LG전자의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G7 씩큐(ThinQ)'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올해 들어 잠잠했던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이 G7 씩큐 출격으로 파동이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G7 씩큐 예약판매가 순조로운 편"이라며 "정식 출시까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G7 씩큐가 그동안 침체됐던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7 씩큐는 전면 카메라 8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는 초광각과 일반각 모두 1600만 화소로 전작 G6보다 각각 300만 화소씩 늘었다. 여기에 일반 스마트폰보다 2배 밝은 디스플레이, 음량을 키워주는 '붐박스' 스피커 등을 갖췄다.

이동통신사는 G7 씩큐의 출시로 번호이동 시장에 반동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고객들이 KT의 'G7 씩큐' 사전예약 개시 소식을 알고 있다. /KT

있다. 올해 들어 번호이동 건수는 50만건을 단 한 차례 넘겼을 정도로 잠잠했다.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길어지고 25% 선택약정(요금할인)이 시장에 안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통신 번호이동가입자는 43만8448건을 기록했다. 3월 50만 947건보다 약 7만건 줄어든 수치다. 가장 낮았던 시기는 올해 2월로 39만7616

건에 그쳤다.

올 3월은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9' 출시로 번호이동 가입자가 소폭 늘었다. 여기에 LG G7 씩큐의 출격으로 번호이동 시장에 활기가 돌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다. 특히 5월은 이동통신 시장 성수기로 꼽혀 출시 적기라는 평도 나온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실시하며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SK텔레콤은 G7 씩큐를 예약하는 고객에게 자사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미니'를 제공하며, KT샵의 직영 온라인에서 예약하는 고객은 '앤쓰리 사운드비 블루투스 스피커', '요이치 셀카봉', '탁상용 다용도 거치대', '3인1케이 블' 4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18일부터 기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주문형비디오(VOD) 쿠폰 2만원을 제공하고, 공식 온라인몰인 'U+shop'에서 사전예약을 하는 고객에게는 추가로 방탄소년단(BTS) 정규3집 앨범을 제공하는 등 이색적인 이벤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다만, 눈에 띄는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실구매가도 하락하고, 스마트폰 성능 상향 평준화로 인해 단말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동통신 3사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출시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9' 시리즈의 출고가 인하에 나서기도 했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뒤이어 지난 10일부터 갤럭시S9 플러스

256기가바이트(GB) 가격을 115만5000원에서 107만8000원으로 7만7000원 내렸다. 삼성전자의 전작 스마트폰 출고가 출시 두 달 만에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지난 5월 삼성전자와 협의해 같은 모델의 출가를 107만8000원으로, 7만7000원 인하한 바 있다. 공시지원금도 높였다.

지난 3월 갤럭시S9 플러스 출시 당시 SK텔레콤은 최고요금제 기준 지원금을 23만7000원, KT는 24만7000원, LG유플러스는 21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이날 기준, 갤럭시S9 플러스 256GB 공시지원금은 6만원대 요금제에서 KT가 35만원으로 가장 높은 지원금을 실었고 LG유플러스가 27만3000원, SK텔레콤이 26만원 순으로 책정돼 최대 10만원 이상 지원금이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번호이동 시장이 냉각된 했지만 G7 씩큐와 갤럭시S9 시리즈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등판으로 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며 "G7 씩큐 정식 출시까지 지켜봐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G7 씩큐' 오디오·카메라 등 해외 언론 호평

LG전자의 'LG G7 씩큐(ThinQ)'가 해외 언론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업그레이드된 오디오, 배터리,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한 인공지능(AI)에 주목했다.

IT 전문매체 폰아레나는 LG G7 씩큐의 카메라에 대해 "전작 대비 화소, 조리개 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으며, 광각의 왜곡까지 줄었다"며 "전·후면 카메라로 아웃포커싱 기능까지 갖춘 괴물 같은 카메라 폰"이라고 극찬했다.

엔가젯은 "초광각 카메라는 그랜드캐니언의 웅장함까지 담을 수 있어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디지털트렌드는 "색상, 디테일, 온도 면에서 화질이 뛰어났던 전작조차도 비

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며 우수한 디스플레이에 주목했다. 미 유틸리티 포브스도 "최대 1000니트라는 깜짝 놀랄만한 밝기로 강렬한 햇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밝혔다.

디지털트렌드는 테이블, 상자 등 속이 비어 있는 곳에 올려놓기만 하면 강력한 저음을 구현하는 붐박스 스피커에 대해서 "음악 애호가들이라면 붐박스 스피커에 감사해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6.1인치 대화면을 담았으면서도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림감으로 정제되고 깔끔한 멋이 돋보인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엔가젯은 가장 먼저 "제품을 감싸고 있는 메탈 프레임은 부드러운 곡면으로 설계돼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KT, 아프리카 최초 르완다에 LTE 전국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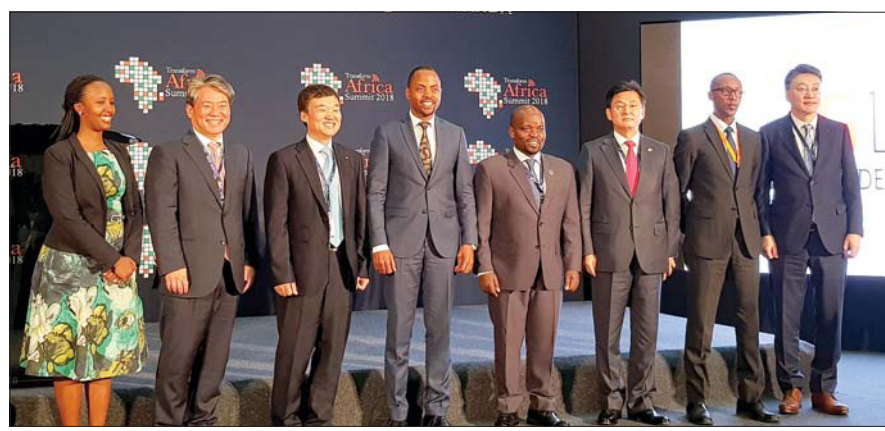
'트랜스포먼 아프리카 서밋 2018' 참가  
4차 산업혁명 발판... 삶의 질 향상 기여

KT가 아프리카 최초로 르완다에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세계에 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지난 7~10일(현지시간)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열린 아프리카 최대 ICT 콘퍼런스 '트랜스포먼 아프리카 서밋 2018'에서 르완다에 4G LTE 전국망 구축 완료 선언포했다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르완다 정보통신부 장관 두 루랑기르와 장관, 앙골라 교육과학기술혁신부 마리아 두 호자리우 브라강카 삼부 장관 등 아프리카 10여개국 ICT 리더들과 주 르완다 김응중 대사 등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아프리카 최초의 LTE 전국망 구축의 성공을 축하했으며, 인구 대비 95% 커버리지를 달성한 전국망에 관심을 보였다.

르완다는 자원이 부족하고 국도가 협소한 내륙국가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적 역량 개발 및 ICT 활성화를 통한



9일(현지시간)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KTRN 산드라 사외이사, KTRN 윤한성 사장, KT 글로벌사업추진실 윤경림 부사장, 르완다 정보통신부 장관 두 루랑기르와 장관, 스마트 아프리카 장 필버트 응생기마나 특별 고문, 주 르완다 김응중 대사, 르완다 정보통신부 레기스 가타라이야 차관, KT 글로벌사업단 김형준 전무. /KT

산업발전'을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다. 르완다는 약 1200만명의 인구 중 860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보유한 국가이며, 이 중 스마트폰 가입자는 115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번 LTE 전국망 구축으로 르완다의 다수 국민들이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르완다 정부는 이번 LTE 전국망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발판이 마련돼 르완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르완다 LTE 전국망 구축은 2013년 르완다정부와 공동으로 조인트벤처(JV)인 KTRN(KT Rwanda Networks)을 설립하고 2014년 11월 수도 키갈리에 상용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지 3년6개월 만에 이룩한 성과다.

KT는 르완다에서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나이지리아, 남아공, 말라위, 베냉, 세네갈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와 협력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르노삼성 QM6 파미에스테이션 라운지.

## 르노삼성, 신세계百貨 강남점 QM6라운지 운영

르노삼성자동차는 오는 20일까지 서울반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있는 파미에스테이션에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6 전시장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2019년형 QM6차량이 전시된 QM6 파미에스테이션 라운지에서는 차량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e커머스) 쇼핑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갖췄다. 회사 측은 차량 시승과 구입 상담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e커머스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에게 커피 교환권과 식사권 등을 증정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각종 행

사도 진행한다.

지난 2일 출시된 2019년형 QM6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과 동작만으로 트렁크를 여닫는 '매직 테일 게이트' 기능, LED(발광다이오드) 헤드램프 등을 LE 트림(세부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나파 가죽 시트와 대시 보드, 조수석의 글로벌박스 등을 꾸미는 '프리미엄 인테리어 패키지'도 마련했다. 이 밖에 열차단 및 차음 앞유리, S 링크 내 애플 카플레이 등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확대 적용한 게 특징이다. /양성운 기자

## 두산중, 국내외서 잇따라 ESS 사업 수주

(에너지저장장치)

SK E&S와 ESS 설비 공급 계약

두산중공업이 최근 국내외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SK E&S와 '전력수요 관리용 ESS'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력수요 관리용 ESS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전력수요가 낮은 야간 시간대에 남은 전기를 저장하고, 이를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사용해 이익을 거두는 사업이다.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공장 내에 관련

설비가 구축되며, 두산중공업이 ESS 공급을 담당하고 SK E&S는 투자·운영을 맡아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제공한다. 두산중공업은 자체 보유한 ESS 제어 소프트웨어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시공까지 일괄 수행해 오는 9월까지 70MWh 규모의 ESS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SK E&S와 공동으로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FEMS와 태양광 발전 등을 구축해 공장 단위 마이크로 그리드(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소규모 지역 전력 자급자족 체계)를 운영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27일 전력기분분야 중소기업 BSS에 ESS 제어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시스템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3일에는 미국 자회사인 두산그리드텍이 '퀵스머스 에너지'와 미시간주 남서쪽 도시 칼라마주 변전소에 들어갈 ESS를 수주하기도 했다.

김성원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에너지 시장 분석 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ESS 시장 규모가 2019년 39억 달러에서 2024년 82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ESS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한편 ESS와 연계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으로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게임 최적화’ 어디서든 즐긴다... 게이밍 노트북 승자는

## 삼성전자 오디세이Z

각 게임별 최적화된 화질 제공  
LG전자 15G870

i7-7700HQ 적용, 데이터 속도 ↑

에이수스·샤오미·에이서 등  
해외기업도 신제품 출시 잇따라



#.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PC방으로 향하는 게 일과가 됐다. 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매번 PC방을 가기가 힘들어져 게이밍 노트북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 A씨는 “비싼 가격이 부담되긴 하지만 0.0001초로 게임의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살만하다”고 말했다.

배틀그라운드,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등의 PC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게이밍 노트북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테크나비오는 게이밍 노트북 시장이 2021년까지 약 25조3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처럼 게이밍 노트북 시장이 커지면서 좋은 성능을 갖춘 신제품도 속속 출시되며 업계 간 경쟁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고성능 노트북임에도 17.9mm의 얇은 두께를 갖춘 ‘삼성 노트북 오디세이 Z’를 출

시했다.

오디세이 Z는 최신 8세대 인텔 코어 i7 헥사코어 프로세서,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60 그래픽카드, PCI 익스프레스(PCIE) NVMe 익스프레스(NVMe) SSD 등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몰입감 있는 게이밍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3D 그래픽 작업이나 이미지·동영상 편집 등 고사양 멀티태스킹 작업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다.

게임 마니아를 위한 사용 편의성도 높였다. 각 게임별 최적화된 화질을 제공하며, Fn+F11 단축키로 한 번에 화면 전환이 가능하다. 오디세이 Z는 메모리 등 세부 사양에 따라 다양한 모델로 출시됐으며, 최상급 모델인 NT850XAC-X716의 출시 가격은 286만원이다.

LG전자는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던 게임 전시회 ‘2018 플레이엑스포’에서 지난 7월 출시한 15.6인치 게이밍 노트북 ‘15G870’을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인텔 프로세서 i7-7700HQ를 적용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 엔비디아의 GTX-1060 그래픽카드를 내장해 화면 구성이 복잡한 게임도 잘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메모리는 기존 DDR3보다 30% 이상 빠른 DDR4 8GB를 적용해 고해상도 게임을 무리 없이 실행한다. 저장 장치는 SSD 256GB를 탑재했다. 출시가격은 239만원이다.

해외 업체도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대만의 에이수스는 지난달 3일 최신 인텔 8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

재한 신제품 ‘로그 게이밍 노트북’ 5종을 공개했다.

로그 게이밍 노트북 5종은 최신 인텔 CPU와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탑재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강력한 성능을 갖췄다. 고사양 스피커는 물론 디스플레이 및 사운드 성능 등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화하고 콤팩트한 디자인을 갖추면서, 한층 향상된 게이밍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뛰어난 휴대성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로그 재퍼러스 GM501은 인텔 8세대 i7 헥사 코어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GTX1070 그래픽카드, G-싱크 기능을 지원하는 반응속도 3ms(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의 144Hz 패널과 초고속 기가 와이파이를 탑재해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성능을 지원한다. 제품 가격은 299만9000원이다.

게이밍 노트북은 비싸다는 편견을 깨는 제품도 나왔다. 중국의 에이서는 지난달 10일 게이밍 노트북 ‘니트로 5’를 국내에 출시했다.

CPU와 그래픽카드, 운영체제에 따라 총 4가지 제품으로 구성된 니트로 5는 정식 인텔 8세대 커피레이크 프로세서가 탑재됐으며 15.6인치 풀HD(1920×1080) 디스플레이 제품임에도 70만~100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출시됐다.

샤오미도 첫 게이밍 노트북인 ‘미 게이밍 랩탑’을 오는 15일부터 예약판매에 들어간다. 이 게이밍 노트북은 인텔 7세대 코어 i5·i7 프로세서를 탑재했고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50 Ti GDDR5 4GB와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60 GDDR5 6GB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5.6인치 풀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미 게이밍 랩탑은 색재현율(NTSC)에서 색 영역 72%, 시야각 178도의 디스플레이 성능을 보인다. 또한 스테인리스 관을 사용한 하판의 공기 흡입구와 2개의 쿨링팬, 4개의 히트파이프, 4개의 공기 배출구를 통해 게임의 냉각 효율을 60% 올렸다. 최고 사양 모델은 약 155만원이며 국내 출시 일정은 미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안드로이드 폰도 ‘애플뮤직’ 5개월 무료

LGU+ 오늘부터 8월까지 가입 가능

LG유플러스는 4000만곡 이상의 음원을 즐길 수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Apple Music)’의 5개월 체험 혜택을 안드로이드 고객에게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애플 뮤직 회원들은 4000만 곡 이상의 음원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아이튠즈(iTunes)’ 보관함 속 음악을 무료로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자신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거나 애플 뮤

직이 선별한 플레이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친구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이번 애플 뮤직 5개월 무료 체험은 LG 유플러스에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기기를 음성 및 데이터 월정액 요금제로 사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

고객들은 14일부터 8월 말까지 LG유플러스 매장,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 공식 웹 사이트를 통해 애플 뮤직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5개월간 과금 없이 애플 뮤직을 체험할 수 있다.

/김나민 기자 silkni@

## LG CNS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 출시

LG CNS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Monachain)’을 출시하고, 본격 사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모나체인은 금융, 공공, 통신, 제조 등 모든 산업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현재 ‘모나체인’이 제공하는 3대 핵심 디지털 서비스는 디지털 인증, 디지털 커뮤니티 화폐, 디지털 공급망 관리다.

디지털 인증은 모나체인의 핵심기능으로 모든 산업영역에 블록체인을 적용하

기 위한 기반 기술이다. 기업형 블록체인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증을 통해 참여자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LG CNS는 차별화된 디지털 인증 서비스(DID)를 위해 분산 신원 확인 기술을 사용한다.

사용자 입장에서 개인 휴대기에서 개인식별번호(PIN) 혹은 지문 등 생체정보만으로도 개인인증, 송금, 결제 등이 가능해 편리하다.

/구서윤 기자

### 신선함이 짝! 냄새없이 짝!

마실 때마다 새우유 같다

# 매일우유

**우유팩보다 신선한 후레쉬팩**

후레쉬팩으로 짝 막아 보관 걱정 없이 더 신선하게 우유 100% 완충으로 공기 접촉 없이 더 신선하게 3중재질로 빛투과를 막아 신선함이 더 오래오래 슬림팩 디자인으로 따르기 더 쉽고 편리하게

매일우유의 이야기는 페이스북 '우유는 매일이다' 에서 계속됩니다. 매일우유(주) 매일상업센터 1588-1539 www.maeil.com



# 中, '자본시장 개방' 확대... 투자유치로 G2 노린다

금융개혁방 3대 원칙 등 조치 발표  
내국민 대우·환율시스템 등 다뤄  
외국인 150~200억불 유입 추정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금융의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최근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조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세계 순이익 상위 5대 기업 중 미국 애플을 제외한 4개가 공상은행 등 중국의 4대 국유 상업은행이다. 중국 전체 은행 자산 중 외자은행 비중이 1.3%에 불과한 것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강력한 중국의 시장 개방 의지를 표명했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자본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금융개혁방 3대 원칙 등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

〈중국인민은행의 금융개혁방 3대 원칙 및 세부 조치〉

①	②	③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방식	환율시스템 개혁 및 자본계정 태환과 보조	금융리스크 예방 중시
향후 수개월 내 이행	연내 이행	
은행, 금융자산관리공사 외자비율 제한 폐지, 외국계 은행의 중국 내 현지법인 및 지점 동시 설립 허용	신탁회사, 금융리스, 자동차 할부, 자금중개, 소비자금융 등 은행업 분야 외자유치 장려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생보사의 외자지분 한도를 51%로 확대, 3년 후 폐지	상업은행이 신규 설립한 금융투자사와 투자자문사의 외자지분 한도 폐지	
합작 증권사의 중국 파트너에 최소 1개 증권사 포함 조건 폐지	외자은행 업무범위 대폭 확대	
5월 1일부터 후구통, 선구통 및 강구통 일중 투자 한도 4배로 확대	합작 증권사 업무범위 제한 폐지	
적격 외자 보험사의 중국 내 보험대리업무 및 손해사정업무 허용	외자보험사 설립 이전 2년간 중국 내 사무소 운영 조건 폐지	
외자보험 중개회사 경영범위 제한 폐지	후룬통(상하이-런던 증시 상호투자) 개통	

했다.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방식, 환율시스템 개혁 및 자본계정 태환과 보고, 금융리스크 예방 조치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민은행 등은 외국인 대중국 투자 지분과 한도 등을 상향

하는 조치를 순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중국외환관리국(SAFE)은 중국 내 외국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경로인 적격국 내유한책임투자자(GDLP·외국계 헤지펀드 등 중국 내 조달자금 해외투자 허용)와 적격국내투자기업(QDIE·중국 적격 기업 중국 내 조달자금 해외투자 허용) 투자한도를 각각 20억달러, 50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상향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외국계기업의 중국 내 합작증권사 지분보유 한도를 49%에서 51%로 상향 조정했고 3년 후에는 100%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 외 후구통(해외투자자 홍콩거래소 통한 상하이 증시 투자), 선구통(해외투자자 홍콩거래소 통한 선전 증시 투자), 강구통(중국본토투자자 상하이-선전거래소 통한 홍콩 증시 투자) 등의 일중 투자한도를 4배로 확대했다. 후구통과 선구통을 130억 위안에서 520억 위안으로, 강구통은 105억 위안에서 420억 위안으로 확대했다.

보고서는 "내달 중국A주의 MSCI신흥 국지수 편입 예정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150~200억 달러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자본시장 개방 조치는 이러한 해외수요 증가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향후 10년 내 세계 두 번째 자본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금융시장 혁신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다만 중국의 경우 금융시장 개혁과 동시에 금융리스크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디레버리징 정책을 펼치고 있어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중국의 이번 개방조치가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미중 무역갈등 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로빈 싱 모건스탠리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방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 〈세부 일정(안)〉

수행업무	업무주체	일정
① 회계법인에 자체점검 요청공문 발송	금감원/한공회	5.14~5.15
② SPC 외부감사 실태 등 자체점검	회계법인	5.16~6.15
③ 점검결과 분석	금감원/한공회	6.18~6.29
④ 회계법인에 대한 현장점검	금감원/한공회	7월
⑤ 위반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안 작성 등	금감원/한공회	8월 이후

## 금감원, SPC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점검

#. '갑' 프로젝트제일차(주)(SPC)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됐다. 업무수탁자(은행)는 갑 SPC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업무(이하 기장업무)를 외부 위탁하면서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갑 SPC의 외부감사인인 '을' 회계법인에 일괄 위탁했다. 그러나 을 회계법인은 기장업무를 독립된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고, 외부감사업무와 기장업무를 동시에 직접 수행했다. 결국 을 회계법인은 외감법 위반으로 담당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SPC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13일 밝혔다.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법상 SPC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상근인력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다. 서류상 회사라도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면 안된다.

그러나 최근 대주, 우덕회계법인이 갑사대상 SPC에 대한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해 외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감원이 실태점검에 나섰다.

감독당국이 유동화회사(SPC)의 외부 감사와 관련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를 점검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DGB대구은행장 후보 '김경룡·박명흠' 압축

임추위서 예비후보자 2명 선정  
이달 말 임시 주주총회 후 선임



김경룡 DGB금융 회장 직무대행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

DGB대구은행의 차기 은행장 후보가 김경룡 DGB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과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 2명으로 압축됐다.

13일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서류심사를 통과한 예비후보자 6명 가운데 2명을 선정했다.

임추위는 오는 18일 심층 면접을 통해 2명의 후보 중 1명을 최종 차기은행장 후보로 내정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는 이달 말 임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DGB대구

은행 신임 은행장으로 선임된다.

김 후보자는 1960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및 영남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1979년 대구은행에 입행해 구미 영업부장, 경산영업부장, 변화혁신추진단장, 경북본부장을 지냈다. 2015년 DGB금융지주 준법감시인 및 DGB 경제연구소장을 거쳐 2017년부터 부사장으로 전략경영본부 및 DGB 경제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공석인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박 후보자는 1960년 서울 출신으로 오산고와 영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85년 대구은행에 입행해 홍보부장, 경산공단영업부장, 부울경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을 거쳐 2017년부터 부행장으로 마케팅본부 및 서울본부를 이끌고 있으며 현재 공석인 은행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사고 '61.7%'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13일 발표한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1723건)로 인한 사상자 수는 1791명으로 집계됐다. 1760명이 부상했고 31명이 사망했다.

손해보험업계 전체로 따지면 총 6340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6470명이 사상했다.

주의분산 보행사고의 61.7%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53.8%)이 1020대로 확인됐다. 1020대의 휴대전화 사용 중 사고는 71%가 등고 및 출근 시간인 오전 8~9시에 집중됐다.

전체 보행자의 20.3%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주의분산 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는 20.0%로 차량과 충돌하거나 충돌 직전(충중) 피했다. 17.1%는 다른 사람과 상충했다.

보행자 10명 중 7명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걷다가 '아차 사고(보행 중 차량이나 다른 보행자 등과 충돌할 뻔한 경우)'를 경험했다. 휴대전화를 보거나 조작하면서 걷는 행동이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면서도 가장 자주하는 행동이라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 동행인과 대화 등 다중작업은 주의분산의 원인으로 전방주시율 및 지각능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진다"며 "특히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이동하면 주변의 소리 및 시야가 제한되어 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신호를 놓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가연 책임연구원은 "보행 중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도로횡단 시에는 휴대폰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부모는 평소 자녀들에게 보행 시 휴대폰이나 휴대용 IT기기의 안전한 사용법을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준 기자

## 신한은행

### SLO 이벤트 경품 전달

신한은행은 새로운 모바일뱅킹 쏘(SO L) 출시기념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내게로와 쏘' 이벤트를 통해 추첨이 된 당첨자는 '기아 SOUL 자동차(1명)', '유럽 배낭여행 상품권(500만 원, 2명)', '안마의자(300만 원, 5명)', '호텔 숙박 상품권(50만 원, 10명)', '의류 상품권(30만 원, 50명)', '영화예매권 2매(1000명)' 등으로 총 1068명 고객에게 경품이 전달됐다.

신한 쏘를 설치하고 기아 SOUL을 타게된 1등 당첨 고객은 "수십만명이 참여한 이벤트에서 1등 당첨까지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이벤트는 1등을 제외한 나머지 경품을 고객이 선택해 응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당첨 고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쏘이 출시 70일 만에 이용고객이 500만명을 넘어섰다"며 "고객이 원하는 편리한뱅킹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제54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5월 29일~6월 21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6월 2일~6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응선) : ~~300,000~~ → 130,000원  
6월 10일(일), 6월 17일(일), 6월 19일(화)

강사: 김대익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 함께, 행복의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사회의 다양한 바람들이 만나  
더 많은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 사통팔달 교통망에 교육·생활 인프라 풍부 '눈길'

## Q 르포 | '영등포 중흥 S-클래스' 견본주택 가보니

“교통이 편리하다고 생각해 분양상담을 받으러 왔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방문했는데 목동학원가와 가까운 교육여건도 적격인 것 같다.”

견본주택에서 만난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A씨(60)의 말이다.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토건은 지난 11일 서울 양평동에서 '영등포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영등포 중흥S-클래스'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7번지에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24층 2개동, 전용면적 24~84㎡로 308가구 중 1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분양관계자는 단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교통여건을 꼽았다.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있다.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도 가깝다. 오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영등포기계상가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영등포 중흥S-클래스'는 중흥이 서울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처음 선보이는 아파트다.

양평역·영등포구청역 모두 가까워 55·84㎡ '부분임대' 특화설계 관심

분양관계자는 “내방객 중 인근 오래된 아파트 거주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방문객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이날 중흥토건이 공개한 분양가는 ▲24㎡ 2억2000만~2억4000만원 ▲28㎡ 2억6000만~2억7000만원 ▲55㎡ 4억8000만~5억 ▲59㎡A 5억~5억4000만원 ▲59㎡B 5억~5억4000만원 ▲59㎡C 4억9000만~5억5000만원 ▲84㎡A 6억7000만~7억 ▲84㎡B 6억8000만~7억5000만원이다.

3.3㎡ 당 분양가는 2100만원 선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며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분양가가 비싸다는 내방객의 의견도 있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B씨(58)는 “다른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다소 비싼 것 같다”며 “발코니확장비가 포



'영등포 중흥S클래스'는 5호선 양평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다.

함됐다”고 하는 하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아쉬워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코스트코 양평점, 롯데마트 양평점, 현대백화점 목동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이 근처에 있다.

학군으로는 단지 인근에 영문초, 문래중, 관악고 등 초·중·고교가 모두 위치해 있으며 목동학원가도 가깝다. 당산공원과 안양천도 인접해 있다.

분양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평형별 전시관을 관람했다. 24㎡의 경우 신혼부부들이 살기 적합한 원룸 형태, 84㎡A는 이면개방, 84㎡B는 세대분리형으로 설계됐다. 남향위주의 배치로 통풍과 채광효과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분양관계자는 “전용 55㎡형과 전용 84㎡B형은 집 한 채로 실거주와 임대소득까지 얻을 수 있는 '부분임대' 특화설계가 적용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등포 중흥S-클래스'의 분양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 16일 1순위 청약, 18일 2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25일이다. 입주하는 오는 2021년 3월 예정이다.

분양관계자는 “영등포 중흥S-클래스는 서울 3대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영등포뉴타운' 조성에 따라 집값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악재 딛고 새출발... 내달 거래재개 목표

### 코스닥 기업탐방

#### 비트로셀

신공장 제품군·공정별로 건물 분리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 1350억 목표

국내 1위, 세계 3위, 업력 30년을 자랑하는 리튬1차전지 생산기업 '비트로셀'. 충남 당진에 위치한 비트로셀 공장에는 다소 적막감이 감돌았다. 건물 여기저기에 붙은 안전표지판은 지난 화재의 아픔이 가시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비트로셀은 지난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후 단 한번의 역성장도 기록하지 않았다. 매출액 400억원대에 불과했던 기업은 10년 새 1000억원대 기업으로 성장했고, 해외 매출 비중 역시 최근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리튬2차전지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1차전지 시장은 여전히 공고하다. 사용기간이 10년 내외로 길고, 극한 조건에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수도·가스 미터기를 비롯해 군수용품 등 전방사업 분야에서는 1차전지를 필요로 해서다.

장밋빛 전망만 가득했던 비트로셀에 화재라는 악재가 덮친 건 작년 4월이었다.

장승국 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전 임직원은 공장이 전소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화성이 강한 원·부자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시장에서는 비트로셀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트로셀 생산 중단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화재 직후 모든 임직원을 불러모아 회사의 새출발을 약속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정리해고자도 없었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비트로셀은 악재를 1년 만에 극복하며 단단하게 돌아왔다.

신공장은 기존 생산공장의 3배인 4만



지난 10일 충남당진 비트로셀 본사에서 진행된 기업 설명회에서 장승국 비트로셀 대표가 회사 사업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위). 비트로셀에서 생산하는 제품. /손영지 기자

4548㎡ 규모로 연구개발(R&D)시설과 생산동, 신뢰성 시험센터 등 19개 동을 갖췄다. 또 다시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군과 공정별로 건물을 분리하고 건물 사이에는 안전 거리를 확보했다. 내진 설계도 진도 7이상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제 비트로셀은 주식거래 재개만이 남았다. 장 대표는 “오는 17일까지 개선이 행내역서를 제출하면 내달 7일쯤 주식거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구 원년인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인 1350억원을 목표로 잡았다. 영업이익 역시 21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대표는 “대형 화재를 겪고도 고객사들이 떠나지 않았던 건 비트로셀만의 독보적인 기술력 덕분이다”면서 “오는 2021년에는 매출액 2000억원, 영업이익 300억원으로 글로벌 시장 세계 1위 기업으로 입지를 굳힐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충남)=손영지 기자

## 미술 경매시장 호조로 수혜 기대감

### 株라쿨라의 중목

#### 서울옥션

포스트 단색화 작품 재평가 기대 홍콩·온라인 경매도 긍정적 요인

“지난 2015년 서울옥션의 주가는 단색화의 재평가 속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최근 '포스트 단색화'로 불리는 민중미술을 필두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서울옥션의 저평가 국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 연구원은 13일 “올해 국내 미술 경매 시장은 2000억원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최고 활황기로 기록된 2007년의 1926억원도 뛰어 넘는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단색화 작품의 해외 전시가 확대되

면서 완만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중미술작가인 오윤, 임옥상, 민정기 등의 작품 재평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19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이 격렬했던 시기 풍경을 사실적으로 담은 민중미술이 '포스트 단색화'로 불리며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홍콩의 경매 성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서울옥션은 국내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홍콩에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회 이상 홍콩 현지 경매를 실시하고 있어 작품 위탁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술품 구매가 대중화되면서 온라인 경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실제 온라인 경매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옥션의 자회사 서울옥션 블루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지난 2016년 78억

원에 불과했던 온라인경매 낙찰금액은 지난해 143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200억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 연구원은 서울옥션의 연결 기준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3% 증가한 123억원, 영업이익은 139.7% 증가한 1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3.5% 수준에 머물렀던 유효 수수료율이 상승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이란 평가다.

최 연구원은 “글로벌 경매업체 소더비의 유효 수수료가 17.2%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익성 개선이 높아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서울옥션에 대해 “긍정적” 주가 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1만350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 대비 43%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한화건설, 임직원 대상 어학수업

### 수강비 90% 지원·토론식 수업 인기

한화건설은 이달부터 임직원 대상 어학수업을 개설해 퇴근 후 교육에 돌입했다.

시험적으로 공인인증영어말하기 시험(OPIC) 난이도에 따라 2단계의 클래스를 개설했다. 해당 강의는 접수 이틀 만에 수강자가 마감되는 등 인기가 높다. 수강비의 90%를 회사에서 지원하며 강의 또한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한다. 수강생들은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최광호 대표이사는 수시로 임직원의 의견을 조직문화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도 올 초 진행된 임직원 설

문조사 내용을 반영해 개설했다. 향후 비즈니스 라이팅(Writing) 및 커뮤니케이션, PT 기법,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직원 자기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화건설은 즐거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큰 호응을 받는 것은 과장~상무보 승진 시 1개월 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안식월 제도’와 오전 7~9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출근시간을 선택하고, 정해진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적용이다.

그 외에도 기존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과 ‘홈데이(오후 5시 퇴근)’를 주 2회로



한화건설 임직원들이 일과 후 어학수업을 듣고 있다. /한화건설

확대했다. 야근을 최소화하기 위한 ‘야근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야근이 지속되는 팀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멘토링하는 ‘업무클리닉’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직장 내 만족도가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며 “누구나 다니고 싶고,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 북미회담 앞둔 北, 핵실험장 폐쇄... '韓 비핵화' 잔걸음

(풍계리)

北, '23~25일 폐쇄' 공식 발표  
韓·美 등 5개국 기자단에 공개

美 트럼프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  
靑 "북미 지도자 믿음 두터워질 것"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3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을 빠르게 내딛고 있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반도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가고 체제 보장을 위한 핵심 열쇠인 '비핵화'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첫번째 조치로 북한은 이달 23~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지난 12일 공식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6월 12일 큰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달에 핵실험장을 폐기(dismantle)하겠다고 발표했다. 생큐"라면서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우리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북측이)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

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믿음이 두터워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의 발표를 인용해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며 "핵실험장 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를 폭발의 방법으로 봉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실험장 폐쇄에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국제기타단에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여러 나라의 언론인을 초청한 것은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면서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다이내마이트 소리가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첫 축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날 북한의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도 폭파 일정 등에 대해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발언들도 나오던데, 풍계리 4개 갱도를 모두 폭파하고 막아버린 뒤 인력을 다 철수

시키다는 것은 최소한 미래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4개 갱도 가운데 1번과 2번은 각각 1번·5번씩 핵실험을 하고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3번 갱도는 완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4번 갱도 역시 최근까지 굴착공사를 하며 핵실험장으로 사용하려 한 것 아닌가"라면서 "핵을 더 소형화하고 성능을 고도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려면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실험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이어 최근에 PVID(Permanent,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즉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는 'CVID'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CVID를 성취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공동 기자회견 후

린 트위터 글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논의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PVID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일 취임식 인사말에서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됐던 말이다. PVID는 CVID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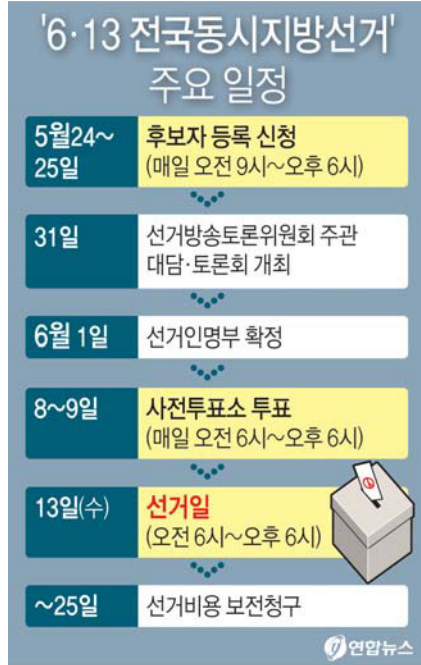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PVID'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나는 기자의 질문에 "과거처럼 여러 단계로 쪼개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PVID가) 무슨 의미인지는 꽤 분명하다. 우리가 과거에 처했던 것과 똑같은 지점으로 귀결되지는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행동을 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PVID라는 개념의 경우 그야말로 완전하고 돌아킬 수 없는 해결을 원한다는 뜻에서 '영구적인'이라고 쓴 게 아닌가 이해하고 있다"라며 PVID와 CVID 사이에 유의미한 뜻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 지방선거 D-30 | 한반도 평화·드루킹 주요 변수

文 정부 첫 심판대  
與, 지지율 고공행진에 초반우세  
野, 경제 이슈 앞세워 견제 호소  
결과따라 정계개편 가능성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13일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22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가 일제히 실시된다. 전국적으로 824명의 광역의원과 2927명의 기초의원도 새롭게 선출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문재인 정부로서는 지난 1년을 평가받는 첫 심판대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여소야대의 한계로 개혁작업에 번번이 발목을 잡힌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지지를 받아 역점 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현 여권에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승패 가를 주요 변수

지방선거를 강타할 주요 변수로는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 한반도 평화무드, '드루킹 특검', 투표율, 민생·경제 등이 꼽힌다. 문 정부에 대한 지지율 흐름 역시 전체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메가톤급 변수는 단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이슈다. 전문가들은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지방선거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 여부도 지방선거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때 드루킹 특검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은 야권이 드루킹 특검을 '대선 불복 특검'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판단하고선 즉각 국회 협상 결렬을 선언, 특검 불가론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드루킹 특검이 지방선거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 역시 무시하지 못할 변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7회 지방선거 역시 지난 5회(54.5%), 6회(56.8%)와 마찬가지로 50% 중후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각종 선거 때마다 표심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민생·경제 문제 역시 변수로 꼽힌다.

### ◆PK·수도권이 승부 가른다

6·13 지방선거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PK(부산·경남) 혈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대 격전지 PK에서 명운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PK 탈환에, 한국당은 PK 수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민주당은 23년 전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PK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리는 등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PK를 내주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절박감 아래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 한국당이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은 정권교체 이후 민심의 동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선거도 관전 포인트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수도권 쟁탈전이야말로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만하다. 한국당은 경기와 인천을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다. 두 곳 다 그동안 보수세력이 주로 승기를 잡아온 지역이다. 만에 하나 민주당이 수도권 3개 지역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특정 정당이 수도권을 석권한 사례로 남게 된다.

### ◆선거 이후 정치권 빅뱅 오나

6·13 지방선거는 여의도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개편을 포함한 정치권 빅뱅까지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문 정부는 변화를 앞세운 각종 국정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국정 동력을 얻게 된다. 반대로 민주당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경남은 물론, 수도권 등 전략 지역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둘 경우 지도부 책임론을 포함한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의 정계개편은 여권보다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의 공언대로 17개 광역단체 중 6곳 이상에서 승리하고, 바른미래당이 존재감을 보이지 못할 경우 한국당이 야권 정계개편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종합=이범중 기자 jaker@

## 의원 4명 사직서 오늘 처리 '국회 정상화' 분수령 될까

민주·민평·정의당 "본회의 참석"  
한국·바른미래 "합의없는 본회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 양승조(충남 천안), 박남춘(인천 남동구 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의 4명의 사직서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들 지역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이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14일 본회의 소집'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드루킹 특검' 등 쟁점 현안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로 지난 9일 이후 나흘간 협상을 중단한 여야가 14일 본회의 개의 문제를 고리로 13일 협상을 재개할지 주목된다.

특히 이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정상화 해법을 밝히고, 단식 농성을 끝내고 병원에 입원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권이 드루킹 특검을 대선 불복 특검으로 몰고 가면서 새 원내지도부는 윤신의 폭이 전임 지도부보다 좁아진 상황"이라면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14일 본

회의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의원 사직서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법안,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사직 안건을 한데 묶은 '패키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약 여야가 협상하지 않거나 협상 결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정 의장이 14일 본회의 소집을 강행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 안건이 처리하려면 147석(재적 과반)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로 최대 149석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이미 무소속 의원들과도 접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직서 처리를 강행한다면 5월 국회는 이대로 끝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밤 9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를 점거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본회의 개의를 막아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상장사, 실적 호조에도 무역전쟁때 ‘신용등급 ↓’ 우려

1분기 실적 올 첫 성적표 장밋빛  
미·중 무역전쟁 리스크 가능성  
韓 수출손실 269억달러 추정

GS칼텍스는 최근 신용등급이 'BBB'에서 'BBB+'(S&P)로 좋아졌다. 등급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번 등급상향은 GS칼텍스가 신중한 재무정책을 유지하고 향후 12~24개월 동안 양호한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이라 전망이 반영된 것이다.

상장사들이 올해 첫 성적표(1분기 실적) 예상치가 장밋빛이다. 신용등급 상향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무역전쟁에 휘말리면 '수출감소→실적 악화→신용등급 하락(자금조달 비용 ↑)'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신용등급에 민감한 글로벌 자금시장에선 이들이 '추락한 천사(fallen angel)'로 부른다. 시장에서는 철강, 정보기술(IT), 산업기계, 화학, 섬유, 자동차업종에서 신용(Credit)리스크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자동차 실적 우려...철강 등 장밋빛  
13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픽스타

상장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는 각각 52조원과 36조8000억원이다. 이는 역대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3분기보다 높은 것이다. 작년 3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42조9000억원, 순이익은 32조1000억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올해 1분기 지주회사·복합기업, 철강·비철금속 업종의 실적이 전망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주회사·복합기업 업종의 경우 현대로보틱스, 삼성물산, SK의 자회사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 철강·비철금속 업종은 국내 철강 가격 상승과 달러 대

비 원화 환율 하락으로 높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자동차·자동차 부품, 석유정제, 제약·바이오, 건설, 디스플레이 업종은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안혁 한국증권 연구원은 "자동차는 환율 하락과 미국 자동차시장의 인센티브 부담, 중국 공장 가동률 하락 부담 때문에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적은 기업 신용에 그대로 반영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개

선 업체 수가 증가하고 취약 업종 구조조정 진전에 따른 신용총액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 하락 업체 수는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 '안정적'에서 '긍정적',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등급 전망이 상향된 업체는 19개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된 업체(10개)보다 많았다. 이는 지난 2016년 등급 전망 상향 변경 업체 13개, 하향 변경 업체 16개이던 것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준이다.

어떤 기업이 제대로된 대접을 받을까. 나이스신용평가는 2018년 산업 신용등급 방향성에 대해 석유화학과 반도체 업종 내 기업의 상황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석유화학과 석유화학 산업은 우호적인 업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품목의 수급 변동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산업은 과점화에 따른 경쟁구도 변화로 리스크가 감소될 것이라 전망이다.

한국기업평가 송태준 기업평가실장은 "최근 등급 하락의 주된 배경은 산업 추세 변화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 경제 쏠림 현상 확대, 전통적인 경기순환 사이클 이탈 업종 증가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G2 무역전쟁이 실적 변수  
앞으로가 문제다. 무역전쟁은 기업에 큰 부담이다.

무역전쟁에 휘말리면 '수출감소→실적 악화→신용등급 하락(자금조달 비용 ↑)'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신용등급에 민감한 글로벌 자금시장에선 이들이 '추락한 천사(fallen angel)'로 부른다. 시장에서는 철강, IT, 산업기계, 화학, 섬유, 자동차업종에서 신용(Credit)리스크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코트라(KOTRA)는 최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향후 수입규제 예상품목으로 자동차를 꼽았다.

이 외에도 지적재산권을 통한 통상압박이 실시된다면 IT, 제약 등에서 갈등도 언제든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정부의 3% 성장을 장담하기 힘들다. 'AA'(S&P)인 국가 신용등급도 흔들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2017~2021년 5년간 우리나라 수출 손실이 269억달러(약 30조6999억 원), 일자리 손실은 24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건강보험공단과 의약 단체들이 수가(酬價)협상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 “내년 국민 부담 건강보험료는 얼마?”

건강보험공단-의약단체, 수기 협상

건강보험공단과 의약 단체들이 수가(酬價)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로,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건보료 인상수준이 결정된다.

13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 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 의료단체는 다음 주부터 2019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낸 건보료를 관리,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이달 말까지 보건 의료 공급자 단체들과 유형별로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협상한다.

수가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 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결기구

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의료수가를 평균 2.3%, 작년에는 평균 2.4% 올려줬다.

이런 수가 인상 영향과, 특히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필요한 자원 마련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건보료율을 지난해 6.1%에서 올해 6.2%로 올렸다. 보험료 인상률로 따지면 2%였다.

지난해에는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20조원 가까이 쌓여둔 건보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국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건보료를 동결했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에 강력히 반발하는 의사단체를 의식해 '적정 수가'를 보장,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급여 부분의 수익만으로도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한 터여서 내년에도 '적정 부담-적정 급여' 기조 아래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복지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건보료는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3.2%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대기업 총수일가 66%, 비상장 계열사 보유

일감몰아주기 행위 논란 요소

효성, 비상장 계열사 가장 많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세 곳 중 두 곳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가 하나라도 있는 집단은 전체의 66%인 38개였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일정 이상 지분(상장 30%, 비상장 20%)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일감몰아주기 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를 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10대 그룹 전문경영인을 만나 총수일가가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모범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런 주식 보유가 '일감몰아주기' 논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10년 뒤 미래를 기준으로 노력해달라는 뜻이었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이러한 형태의 비상장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효성으로, 효성 총수일

가는 노틸러스호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모두 14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어섰다. 특히 14개 비상장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평균은 76.1%였다.

이어 GS가 2위를 기록했다. 보한개발, 승산 등 13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어섰으며, 평균 지분율은 84.3%에 달했다.

자산 5조~10조원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는 중흥건설이 1위였다. 중흥건설 총수일가는 금석토건, 시티건설, 새솔건설 등 총 38개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겼다. 평균은 88.4%였다.

호반건설은 15개, SM은 13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넘었다.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8%, 74.7%에 달했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

## 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은 110세·최연소는 만 1세

#. 서울에 사는 A씨(110세)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령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기록됐다.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2만9000원을 받고 있다. 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B양(만 1세)은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다. B양은 2016년 6월생으로 부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17만9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지난해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A씨를 포함 총 85명이다. 남자가 14명, 여자가 71명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로 월평균 23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00세 이

상 수급자는 지난 2012년 29명,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장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5세 여성으로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28년 11개월 동안 8155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장애·노령·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특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유족에게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지난해 전체 연금수급자는 447만 5143명이며 이 중 유족연금 수급자는 69만 3141명이었다. 이들에게는 1조8746억 9000만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유족연금 지급규정을 개선하여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기본연금액의 60%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유족연금은 월평균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약 10만원 증가한다.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는다. 기본연금액은 사망자의 평균보험료를 산출해 이를 20년간 냈다고 가정한다. /이봉준 기자 bj35sea@



G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가성비 높은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70개국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GMT  
1547.1135



남북 관계 해빙기에 변화하는 '한반도 보건망'

# 보건지원 제약사 '방긋' vs 핵 대신 '결핵 구멍' 우려

수액·백신생산 제약사 기대감 ↑  
'남북경협 수혜 테마주' 주가 올라  
北 결핵환자 세계 1위, 감염 지적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남북협력의 물꼬가 트였다. 이에 보건당국이 대북 보건 지원 준비에 나서면서 제약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일부 보건전문가들은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한반도가 결핵에 노출되는 등 보건 관리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남북경협에... 제약업계는 '미소'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9일 "남북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에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했다"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북한에서 시급한 질병의 의약품 보급부터 제약시설 건립, 보건소 보급까지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 당국이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단초 마련에 나서자 제약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한 제약사 관계자는 13일 "이번 남북 해빙 무드로 전염병 백신 지원, 약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국군위장대 사열을 마친 뒤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건립 착수, 주사제 냉장운반장치, 구급차, 진단 시약, 치료제 제공 및 실태조사 자료 교환 등 과거에 진행했던 의료 지원이 재개될 것 같다"며 "지난 10.4 남북 정상회담을 뒤돌아보면 수액 및 백신 등의 필수약품과 생산시설 설립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녹십자는 지난 2000년 평양에서 조선광명성총회사와 합작·설립한 유로키나제 공장을 준공했다. 이 공장에는 녹십자에서 파견된 기술진과 북한 측 근로자가 함께 근무했으며, 혈전치료제에 사용되는 유로키나제를 생산해 국내에

반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북한의 의약품 생산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의약품을 공급하고, 북한의 생산 인프라 구축에 국내 제약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런 흐름 속에 GC녹십자와 JW중외 제약, 조아제약 등은 이른바 '남북경협 수혜 테마주'로 불리며 주가를 올리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기초수액 및 영양수액, 백신 생산에 경쟁력을 가진 제약사들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 경협에...한반도 건강 비상?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된 상황에서 한반도 보건 안전망에는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국제 보건전문가들은 북한의 결핵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기금 '글로벌 펀드'가 북한에 대한 결핵 퇴치사업을 다음 달 말 중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결핵 관리망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남북교류를 앞둔 시점에 남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북한 결핵 환자가 남한에 온다든지 혹은 남한 인사들이 북한 가서 활동하게 될 경우에 결핵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보건계의 중론이다.

북한은 법정전염병인 결핵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50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중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슈퍼 결핵 환자가 6000명에 육박해 '핵보다 결핵' 문제가 시급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국내 의료계는 대북 의료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12월 대한병원협회는 남북 교류 확대에 따른 북한 의료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임영진 회장은 "가장 우선으로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북한과 의료협력을 계획하고 있다"며 "오래전부

터 북한 의료지원에 참여해왔던 세브란스 병원을 중심으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 방향에 대해 유인상 총무위원장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협업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방적 물자 지원을 배제될 가능성이 크고 남북 공동 연구 등 협력과 협업을 중점으로 둘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조치로 인해 정부 차원의 모든 의료 지원이 단절된 상황이다.

실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북한 신의주 지역의 수해 지원을 위해 북한 수해 지역과 북한 주민 의료지원 사업 등 목적으로 비영리단체인 민족사랑나눔을 중심으로 93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한 것이 마지막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 정부 차원의 대북 의료지원은 전무했다.

게다가 UN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의 압박 등 제재 국면이 더욱 심화하면서 북한은 열악한 보건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높은 영아 사망률에서 북한 보건 의료분야의 열악한 인프라가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24명(2014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배, 남한의 6배를 넘는다.

/유재희기자 ryusoul1@metroseoul.co.kr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목표(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사업목표	지표명	2008	2013년	2020년	사업명
근로자의 육체적 기초건강 증진을 통한 뇌·심혈관 질환자수 감소	남성 근로자의 현재 흡연율	51.70	45.60	30	가) 사업장 건강 증진 운동 활성화
	남성 근로자의 고위험음주율	26.80	21.20	20	
	근로자의 고혈압 유병률	21.80	22.90	21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증진	근로자의 비만 (25kg/m <sup>2</sup> 이상) 유병률	30.30	31.70	30	나)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운영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사망률	3.60	2.30	3	
	근로자의 우울증상 경험률	11.30	7.40	7.00	

\*단위: % /자료=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 스트레스 등 직장인 건강 '빨간불'

직장인 30% '스트레스' 호소  
보험연구원 "안전보건 강화 넘어  
근로자 질병예방 위한 정책 필요"

최근 4차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른 서비스업종의 증가, 근로자 고령화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직장인 건강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광물, 건설, 제조업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을 중심으로 시행된 사업장 보건의 패러다임을 '직업병 예방'에서 '근로자 건강증진'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과 안소영 연구위원이 13일 발표한 '직장인 건강증진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최근 산업구조가 제조업, 건설업 등 3차산업에서 서비스업과 같은 4차산업으로 변화하면서 감정노동, 장시간 노동, 야간근무 등으로 직장인 직무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직장인이 근무 중 스트레스를 느끼는 근로자 비율은 남성이 26.5%, 여성이 25.4%로 집계됐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도 질병을 야기했다. 남성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일반 성인남성보다 좋지 않았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성인남성 대비 흡연율과 음주율

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임근 근로자에게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높은 빈도로 발생했다. 산재보험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중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등이 포함된 작업 관련성 질환은 약 77%로 집계됐다.

오승연 연구위원은 "그동안 각 산업 사업장은 광물이나 건설, 제조업 등 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다만 최근 들어 서비스업종이 증가하고 산업형태가 변화하는 만큼 근로자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은 "기업에서도 종업원 후생복지 측면에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 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인 건강은 보험산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은 보험의 주요한 수요 계층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에서 직장인의 건강증진은 건강리스크의 증가에 대응한 보험금 지급관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돌아온 '큰 손 썬커'에 숨통 트인 유통가

(중국인 개별관광객)

중 관광객 1년 만에 증가세 전환  
썬커 구매력 높아 객단가도 상승  
유통업계 중 관광객 마케팅 활발



랄라블라 명동중앙점에서 중국인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GS리테일

사드 해빙 분위기가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중국인 개별관광객(썬커) 유입이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중국의 단체관광 허용 지역도 증가하면서 향후 단체관광객(유커) 깃발 부대도 빠른 시일안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 개별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결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H&B스토어 랄라블라(구 왓슨스)가 지난 4월부터 5월 7일까지 은련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명동 지역 매출은 33% 증가한 반면 개별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홍대·동대문 지역의 랄라블라 점포의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134%, 241%나 급증했다 유커 대신 썬커의 유입이 늘고있다는 분석이다.

개별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내국세 즉시 환급서비스의 이용 금액 역시 큰 폭으로 신장하고 있다. 홍대 점포의 경우 노동절 연휴(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기간 동안 전주대비 47%의 신장을 보였다.

랄라블라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어 홍보물 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별도 매대로 구성하여 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 연말면세점 오픈을 앞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도 중국 개별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현대백화점의 중국 노동절 연휴에 발생한 중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5% 신장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고객 매출 신장률(41.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썬커가 많이 찾는 무역센터점의 경우 중국인 매출 신장률은 174.1%에 달했다.

실제 무역센터점은 구매력이 높은 이른바 큰 손 썬커들이 늘어나면서 객단가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절 기간 무역센터점을 방문한 중국인 고객수는 지난해 대비 48.4% 신장한 반면 객단가는 7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81.7%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구매 단가가 큰 해외패션(142.3%), 럭셔리시계(92.7%) 등의 매출 호조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장품(80.6%)과 식품(61.3%)의 매출 신장률보다 2배 가량 높다.

이혁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상

무)는 "지난 3월부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개별 관광객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훌륭한 인프라를 갖춘 무역센터점 일대가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큰 손 썬커들이 몰리면서 지난해보다 더욱 활기를 띄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공항과 도심, 관광지에 널리 편의점에서 중국 개별관광객들의 소비가 늘었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CU에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은련카드·알리페이의 결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5% 증가했다.

CU 관계자는 "편의점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유입 조짐을 감지하는 바로 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커들의 쇼핑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방한 중국관광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 늘어난 40만 3000명이다. 지난해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김유진 기자 ujr6326@





경복궁 '다례 체험'

맑고 포근한 13일 오후 경복궁 자경전을 찾은 시민들이 다례 체험을 하며 한가로운 오월의 봄날을 즐기고 있다. /연말뉴스

## 농식품부, UAE에 농업협력 대표단 파견

현지 농업 파악·협력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농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표단은 이달 17일까지 UAE에서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은 후 농산물 생산 농가 및 주요 시설, 농업 관련 연구기관 등을 방문해 현지 농업 현황을 파악하고 양국 간 구체적인 농업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기업들의 장기적인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연구기관, 학계, 기업 등을 중심으로 10명의 실사단을 구성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양국 정상은 농업 분야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UAE 모하메드 왕세제는 우리나라의 앞선 농업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식

량안보와 더불어 경제성 측면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UAE는 연평균 6.25mm의 낮은 강수량과 40℃를 넘나드는 폭염(5~10월), 강한 햇빛과 잦은 모래폭풍 등으로 인해 농작물 생육에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해 사막에 최적화된 재배기술 및 품종 개발 등을 통해 열악한 현지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지 실사후 우리 농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나아가 농업에 열악한 사막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사막의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싱가포르·태국에 '신남방정책' 확산

백운규 산업부장관, 오늘 현지 방문

정부가 그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진행되던 신남방정책을 싱가포르와 태국으로 확대하는 계기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해 태국 총리를 비롯한 각국 산업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 등을 면담하고 한-싱가포르, 한-태국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백 장관은 우선 14일과 15일 양일 간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을 만나 4차 산업혁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스마트 제조기술 등 산업 기술협력 확대 방안 ▲에너지 자립성 등 스마트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3D프린팅, 로보틱스,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

명 대응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현재 싱가포르의 한-아세안 FTA 이행위 의장국이자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인 아세안의 오피니언 리더로 스마트 네이션 구축·로보틱스·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백 장관은 이어 16일과 17일에는 태국을 방문해 총리를 면담하고 산업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을 각각 만나 양국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국에는 현재 전자 산업 중심으로 우리 기업 400여 업체가 진출해 있다"며 "이번 백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기존 협력 산업 외에 전기차, 바이오산업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韓·日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성과없이 40년 흘러

# 석유개발 등 정책수립 절실

공동탐사 잠정중단... 2028년 종료 협정 종료후 韓에 불리 가능성 커  
종료 전 성과 거둬 협정 연장해야

지난 197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발효됐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1974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1978년 발효시켰다.

공동개발협정은 2028년 종료되지만 현재까지 일본이 천연자원 개발의 경제성 부재를 이유로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 차원에서 한·일 간 공동연구가 있었으나 일본은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며 현재 공동탐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대부분이 잠정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일본 측 해역에 놓여있어 협정 종료 이후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원 개발의 경우 10년이라는 기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해저자원개발을 위해서는 광구권 취득, 탐사 및 상업 개발, 석유제품 생산 시설로 이송되는 때까지 통상 약 10년의 기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1~2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경우에는 탐사 시추를 통해서 석유의 존재를 확인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상업 생산이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동개발구역의 석유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이 긴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협정 종료 이전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개발성과를 내어야 협정을 연장할 수 있고, 그 후 전개될 한·일 간 해양경계협

정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해태하고 있는 일본 측에 협정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종합적 대응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가 함께 정책을 강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KMI 관계자는 "우선 산업부는 굴착을 통한 석유자원의 부존 가능성 탐사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계속해서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면 외교부가 나서 국제법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협정 위반에 따른 조약의 시행정지를 주장하는 방안 및 관련 협정에 따라 국제재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작업 착수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준비단 출범  
8월 산업부에 정책건의서 전달키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최근 정부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출범시켜 향후 활동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앞으로 4개월 간 운영될 준비단은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

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재검토준비단은 현재 한국갈등학회 은재호 회장을 단장으로 내정하고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출범했다.

이 중 원전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총 11명은 한국원자력학회, 고준위핵폐기물 정책대응 전국회의(준), 경주시청 등 관련기관·단체 및 지역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검토의 목표 ▲재검토 실행기구(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재검토 항목(의제선정)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올해 8월 경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해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이명박, 고령·건강 탓 재판출석 힘들 듯

서울중앙지법, 23일 첫 정식재판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조사 일정 등 계획을 잡는다. 첫 정식재판은 23일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모두진술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증거조사 기일에 77세 피고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장시간 앉아있어야만 하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당 수지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0일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그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증거 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했다. 조사는 약 14일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두 차례 진행되는 재판에서 한 시간에 10분 씩 휴정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해, 증인 신문 절차가 대폭 줄어 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입증 취지는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은 증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을 이어가기로 했다. 별도 증인 신청이 이어질 경우, 재판은 일주일에 3회로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일주일에 4차례 국정농단 재판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관련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7월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자신의 재판에도 같은 사유로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지난달 6일 선고까지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지난 9일 허리



이명박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 병원을 찾았다. 변호인단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을 타진한 이 전 대통령 역시 '출석률 100%'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객관적 물증으로 방어하기 위해 검찰 증거에 동의한 만큼, 자신의 건강을 이유로 주요 증인을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구속 전날 그가 보인 태도가 당당했다"며 "지금 검찰이 영똥한 곳을 겨누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이법종 기자 joker@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은 13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 5·18 민주묘지 추모분위기 물씬 참배객 '님을 위한 행진곡' 흘러 이달 추모인파 4만707명 기록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오월 영령이 잠든 국립 5·18민주묘지에 대학생들의 낭랑한 목소리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은 13일 5·18민주묘지에는 항쟁 역사를 새기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가족, 연인, 단체 등 다시 찾아온 5월을 기억하는 추모객 발길이 이른 오전부터 이어졌다. 추모객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숙연한 표정으로 묘지 들머리 민주묘문에서 참

배단을 향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옮겼다. 참배단 앞에서 두 손 모아 묵념하고 개인 묘역으로 이동해 산화한 열사를 기렸다. 윤상원 열사 묘소 주변에서는 학생모임 등 단체 참배객이 한목소리로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꾸준히 흘러나왔다. 추모객들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실제로 존재했던 항쟁을 되새기고자 5·18 묘지를 찾았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남작친구와 함께 5·18묘지를 찾은 직장인 이혜미(26·여) 씨는 “사대 문형무소처럼 잊지 않아야 할 역사가 갖은 장소를 데이트코스나 여행지 삼아 찾아다닌다”며 “5·18 현장에 서기는 오늘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묘지를 참배하는 동안 고향이 광주인 아버지가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고 아무 말슴 없이 평평 우췌던 기억이 떠올랐다”라며 “옛 전남도청과 상무대 영창 터도 둘러볼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자라나는 아이에게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찾아온 가족 추모객도 눈에 띄었다. 15살 아들, 7살 딸과 함께 전북 전주에서 5·18묘지를 찾아온 최성현(49) 씨는 “아이들이 5·18을 알고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애들이 훨씬 어릴 때부터 해마다 찾아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5·18묘지를 찾은 추모인파는 전날까지 4만707명을 기록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 영광예술의전당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영광예술의전당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영광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영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영광예술의전당 입구에서 추진위원과 내외빈 학생과 군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무형문화재 17호 우도농악 최은미, 최용 선생님의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추모시를 장은영 추진위원이 낭독해 민족의 비극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명예 회복을 위해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엔 세워진 영광 평화의 소녀상은 다른 지역과 달리 순수 동 재질로 140cm 높이의 맨발로 앉은 채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두 손에 든 좌상 형태로 제작됐다. 희망과 이상을 상징하는 파랑새, 평화를 지켜보는 비둘기, 푸른 하늘을 응시하는 소녀상은 어두운 시대에도 희망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영광군의 지도를 형상화해 새겨진 비문에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평화의 소녀상을 조각한 이은희 작가는 “동상 제작에 직접 참여를 하니 마음이 몽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평화의 소녀상에는 무엇보다도 당당함과 자신감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희망을 찾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아이들에게도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소녀상 건립에 군민들의 참여도 의미 깊다. 영광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82일 동안 학교와 기업, 단체 등 14여 곳과 1,534명의 학생, 군민 등의 뜨거운 관심 속에 4500만원을 모금했다. 원복성 추진위원장은 “국가가 힘을 잃고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은 일본 제국주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영광예술의전당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영광 평화의 소녀상’이 지난 9일 세워졌다.

의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징용으로 희생된 분들의 고통을 피하지 말고 우리의 역사 중 일부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일본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는데 영광을 대표하는 청년단체로서 영광청년회의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영광청년회의소의 회장으로서 소녀상 제작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영광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는 향후 소녀상 관리를 위한 공청회, 역사 교육사업, 홍보활동, 청소년사업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 영광=김남중 기자

### 전주교광주대교구 정평위 5·18기념 도보순례

전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는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도보 순례와 기념 미사, 촛불행진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지난 12일 인권평화특강을 시작으로 13일 정신 계승 도보 순례를 진행했다.

14일에는 남동 5·18기념성당에서 김희중 하지노 전주교광주대교구 교구장이 직접 기념 미사를 집전하고, 남동 5·18기념성당에서는 18일부터 이틀 간 5·18헌법전문수룩기원 바자회를 진행한다. 정평위는 한반도에 온전한 평화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보 순례의 경우 직접 전화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정평위는 많은 신

자 뿐 아니라 비신자들도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수 프란치스코 전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은 “국립 5·18민주묘역, 민족민주열사 묘역, 5·18기록관, 옛 전남도청 등 5월 역사 현장 순례 일정을 통해 5·18에 대한 역사성과 공동체 의식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5월의 진실이 모든 지역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 광주시, 미취업 청년들 월 40만원 지원 “생활비 받고 구직활동 하세요”

광주시가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생활비를 지원하는 ‘광주청년 드림수당’ 참여자를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청년 드림수당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매월 4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1차 500명, 2차 600명으로 나눠 올해 모두 1천100명에게 드림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조건은 광주에 사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학교졸업 후 미취업 청년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원,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 각종 정부사업 현재

참여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광주청년드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광주시는 가구소득·미취업기간·구직활동 계획서 등을 종합 심사한 뒤 6월 12일까지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16일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이승철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13일 “광주시 조사 결과 광주지역 미취업 청년이 월평균 40만 원의 생활비를 쓰고 구직준비 기간도 12.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지원 성과를 분석해 내년 이후 정부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 보성군, ‘참다래 인공수분’ 기술 지원

보성군은 참다래 개화기를 맞아 과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수분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참다래는 바람에 의한 자연수분은 거의 되지 않아 반드시 인공수분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비닐하우스나 파풍망시설은 인공수분이 더욱 필요하다. 군은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을 위해 참다래 재배 160여 농가가 지난해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꽃가루에 대해 발화율 검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달까지 중점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발아율 활력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방으로 우량 꽃가루를 인공수분용으로 사용하도록 현장지도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 수분시 이용되는 증류수는 농가에 희망할 경우 매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참다래 인공수분을 분석하고 있다.

참다래 물 수분은 증류수 4 l 에 현탁액 200ml, 꽃가루 16g, 색소 0.8g 비율로 혼합하여 믹서로 잘 섞어 암꽃이 핀 후 3일 이내에 분무하고, 1차 분무 후 2~3일 후 2차 분무를 하면 기존 가루수분에 비해 노동력 절감효과와 수정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인공수분 방법이다. /전남 보성=문성환 기자 m8527188@



### 광주시, 광주시민대상 수상자 4명 선정

광주시는 13일 2018년도 광주광역시민대상 수상자로 사회봉사 분야 박용구, 학술 분야 윤진상, 체육 분야 백남길, 지역경제진흥 분야 한상원씨 등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대상 수상자인 박용구(65) 광주시공무리봉사회 회장은 40년 넘게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차량봉사활동을 펼친 공로가 인정됐다. 학술대상 부문의 윤진상(63)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003년 발표한 치매 관련 논문이 ‘신경학-신경외과-정신의학 저널’ 표지논문으로 선정되고 한국의 임상수면의학을 개척하는 등 학술적 성과가 뛰어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체육대상 부문의 백남길(64) 광주시체육회 부회장은 체육회 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추진위원장으로 62개 종목 45만

동호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으며 활발한 스포츠 교류활동을 통해 전문체육 분야의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됐다. 지역경제진흥대상 부문의 한상원(64) 다스코(주) 대표이사는 314건의 산업 지식 재산권을 등록하는 등 신기술개발에 주력하고 광주·전남권의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상생노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일자리 고용창출에 기여한 점이 인정받았다. 광주시민대상은 사회봉사, 학술, 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등 5개 분야에서 광주시의 명예와 지역발전에 공헌한 이에게 주는 상으로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 134명과 8개 단체에 수여됐다. 올해 시민대상 수상자 시상식은 21일 제 53회 광주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전남 광주=김남중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 남북 화해무드에 北 근로자 직업교육센터 ‘큰 그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주간 간담회**  
역량 결집해 北 근로자 직업교육  
“동남아 등 외국인 대신 北 인력  
고용시 북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며 말을 하고 있다. 박 회장 왼쪽에는 중기중앙회 이흥우 부회장, 오른쪽으로는 중기중앙회 신영선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특정지역에 북한의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산업·직업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남북 평화 직업교육센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UN의 대북제재가 풀리는 등 남북경협이 완전하게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는 동남아시아 등 수 많은 해외인력이 들어와 일을 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이들 인력 대신 북한 인력을 쓰면 된다”면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나서고 제조·서비스 등 300개 가량에 달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의 노하우를 활용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해외근로자들이 용접, 금형 등 뿌리산업을 비롯해 도금, 연색, 가구 등 소위 ‘3D 업종’에서 주로 일하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남측 중소기업들이 북측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장 등의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지금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 엄청난 돈이 외국으로 (송금돼)나가는데 이것이 북한으로 가면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력의 질이 좋은 북한 근로자들을 위해 (개성공단 등의 경험에 있는) 중소기업계가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을 모두 포함해 필요한 산업 인력 수요를 연간 110만명 정도로 추산할 때 이 가운데 절반 가량만 북한 근로자들로 활용해도 현장에서 인력에 상당한 숨통이 트일 것이라 기대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등을 적용해 북측 근로자들이 연간 3000만원 정도를 받고 이 가운데 2000만원 가량을 송금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약 100억 달러 정도가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의 경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이같은 구상은 (경협 등)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이 완전히 개방이 돼 정상적인 모습이 됐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지금으로선 실무 검토와 구상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남북이 한창 긴장 관계

를 유지하고 있던 지난 2014년부터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를 꾸려 그동안 세미나 등을 통해 남북 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위원회는 개성공단에서 가장 많은 북측 근로자를 고용해 공장을 운영했던 삼덕통상 문창섭 회장과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가 맡았다.

이와 별도로 중기중앙회는 지난달엔 통일부에 중소기업과 신경제 10대 과제를 전달, 남북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시기에 중소기업들의 역할 등에 대해 관련 부처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도 했다.

박성택 회장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는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UN제재가 풀리고 관계가 정상화되면 중소기업계는 개성공단 조기가동과 제2, 제3의 개성공단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 및 서비스 현장에도 많은 북한근로자를 고용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역할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여성벤처협, 소통·협력 등 주제로 ‘CEO 혁신 아카데미’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벤처기업인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12일 신한은행 기흥연수원에서 ‘2018 여성벤처 CEO 혁신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성장을 위한 전략특강, 현장소통, 협력증진의 3가지 테마로 진행된 이번 혁신아카데미는 구글코리아 김태원 상무의 ‘비즈니스 혁신과 창조적 기업문화’, 안세희계법인 이남재 회계사의 ‘벤처기업의 절세전략’ 등 특강도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성벤처협회

## 이대목동병원, 지역주민과 상생발전 논의

“병원쇄신·사회공헌활동 전개할 것”

이대목동병원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 상생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한중민 병원장, 정성에 대외협력실장, 정혜경 고객만족실장, 이사라 홍보실장, 송혜경 대외협력 부실장, 김한진 사무부장 업무대행 등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병원 인근 목동 주민센터를 찾아 노병채 목동 동장과 통장협의회를 만나 병원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노병채 동장 등 지역 통장들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 병원의 전문적인 역량을 이용한 응급처치 교육, 건강강좌 실시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중민 병원장도 올해 9월 진행될 위대장센터 개소 기념행사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고, 지역 내 여러 기관·단체와 함께 봉사활동이나 건강강좌 및 무료 건강검진,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함



지난 10일 한중민 이대목동병원 병원장(오른쪽부터), 정성에 대외협력실장, 정혜경 고객만족실장, 이사라 홍보실장, 송혜경 대외협력 부실장, 김한진 사무부장 업무대행. /이희의리포트

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응답했다.

한중민 병원장은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진정한 지역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병원 정책에 반영해 병원 쇄신과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해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개성공단 기업 “북미정상회담 직후 방북”

“시설 점검해야 연내 재개 가능”  
개성공단 추가입주 문의도 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시설 점검 등을 위해 방북을 재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안에 점검을 해야 연내 가동을 위한 준비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추가 입주에 대한 문의도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다음달 22일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직후 방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성공단기업 관계자는 “북미 회담 결과에 달렸지만, 공단 재개 시점은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며 “시간이 늦어질수록 입주 기업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 다음 달이라도 공단에 가서 기계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연내 재개가 가능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입주기업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지난 2월26일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방북은 무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39.6% (40개사)는 개성공단 재개 예상 시점을 ‘내년 이후 현 정부 임기 내’로 꼽았다. 공단 재개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예상한 기업도 34.7% (35개사)에 달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96%는 개성공단 재

개시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69.3%는 ‘정부와 북측의 재개조건 및 상황 판단후 재입주’를, 26.7%는 ‘무조건 재입주’를 하겠다고 답했다.

‘개성공단이 국내의 공단 대비 경쟁력이 우수하다’ (79.4%)는 이유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한반도의 봄이 성큼 오면서 새롭게 개성공단에 입주할 하거나 또는 분양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하는 국내외 기업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대책위원회 태스크포스(TF) 핵심 관계자는 “남북 관계 개선이 진척을 보이면서 개성공단에 새로 들어가고 싶다는 문의가 많다. 입주하기 위한 방법이나 분양 등을 묻는다”고 말했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도 “중소, 중견 기업 중에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주로 봉제업이나 건설자재 등 업종도 다양하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 중소기업계 “‘지역기반형’ 中企 육성해달라”

오늘부터 18일까지 中企 주간행사

“지역 혁신성·성장잠재력 떨어져  
지방정부에 권한 대폭 이양해야”

범중소기업계가 올해 30회째인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지역기반형 중소기업’ 육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 경제를 실현하고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다.

특히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중소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한 달 안으로 바짝 다가온 6·13 지방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후보자들에게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아젠다를

보다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범중소기업계가 이번 중소기업주간에 마련한 지역기반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 과제에는 ▲제조현장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확산 ▲지역별 중기 공동구매 전용보증제 도입 ▲노후 산업단지 정비 및 그린 리모델링 ▲지역 청년·지역 중기 취업 유인책 마련 ▲지역 스타기업 발굴 ▲해외진출 중기의 국내 유턴 지원 강화 ▲공정위와 지자체 조사권 분담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또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서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전문단지 조성(부산) ▲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대

구) ▲안산 섬유패션종합지원센터 건립(경기) 등 지역별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역에는 일할 사람도, 돈도 부족하다. 혁신성,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민선 7기는 지역 사정과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지역 기반형 중소기업’이 출현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상당한 실정이다. 혁신의 아이콘인 벤처기업은 수도권에 72.7%가 몰려있다.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도 수도권(73.7%)이 비수도권(26.3%)에 비해 월등하다.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비 역시 수도권에 67.3%가 집중돼 있다. 예금도 수도권에 70%가 집중돼 있고, 청년인구도 수도권이 51.4%로 비수도권(48.6%)에 비해 많다. /김승호 기자



# 롯데백 해외명품 50% 할인

올해 첫 해외명품 시즌오프 진행  
랑방·지미추 등 210여 개 브랜드

롯데백화점은 오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해외명품 시즌오프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즌오프 행사는 코치, 에트로, 지미추, 마크제이컵스 등 총 210여개 브랜드가 참여,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해외명품 상품군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경기 불황에도 꾸준히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시계·보석이 10.5%, 해외패션 의류가 12.1% 신장하면서 해외명품 상품군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10.7%라는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해외명품 상품군에 20~30대의 젊은 고객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젊은 고객의 소비 트렌드가 저렴한 상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방식에서 고가의 상품을 하나만 구매하는 가치 소비 트렌드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2018년 1분기 롯데백화점 20~30대 고객의 해외명품 상품군 매출 신장률은 전체 시장률보다 약 20%p 높은 30%대 신장률을 기록했다.

우선 롯데백화점은 18일부터 끌로에, MSGM, 모스키노, 필립플레인 등의 브랜드가, 25일에는 겐조, 에트로,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의 브랜드가 6월까지 순차적으로 시즌오프에 들어간다.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끌로에 매장에서 고객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롯데백화점

해외명품 시즌오프에 참여하는 대표 브랜드의 할인율은 코치 30~50%, 랑방 30%, 에트로 20~30% 등이며, 럭셔리 슈즈 브랜드인 지미추는 30~40%, 스텔러트와이즈먼은 30% 할인한다. 또 롯데백화점의 PB 브랜드인 '엘리든'도 30% 할인 판매한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16일부터 29일까지 본점, 잠실점, 대구점에서는 해외명품 시계와 보석을 선보이는 '럭셔리 워치&주얼리 페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브랜드별로 국제시계박람회 출판작 및 리미티드 에디션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IWC 브랜드에서는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국내에 최초로 입고된 '히스토리컬 타임피스' 10점을 본점 에비뉴엘에서 단독 공개하며 예저르쿨트르에서는 '브라이덜' 프로모션을 통해 행사 기간 동안 구매 고객에게 '플라워 박스' 등의 스페셜 기프트를 제공한다. /김유진 기자

## “집에서 VR로 화장해보고 구매까지”

# 현대백, 증강현실 메이크업 첫 선

현대백화점이 유통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리테일테크(Retailtech)' 실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식 온라인몰에 'VR스토어', '인공지능(AI) 상품 추천 서비스' 등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한 '메이크업 서비스'를 도입했다. 온라인 쇼핑몰들이 최저가와 배송 속도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현대백화점의 차별화 전략 중 하나다.

현대백화점은 중국 뷰티 관련 스마트폰 앱(APP·어플) 개발 전문기업인 '메이투'와 제휴를 맺고 공식 온라인 쇼핑몰 '더현대닷컴'에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몰에 증강현실을 이용한 메이크업 시연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이투가 지난 2015년 개발한 '메이크업플러스'는 전세계적으로 약 2억 건 가량이 다운로드됐으며 월 이용자만 1400만 명에 이른다. 국내에서도 월 이용자가 50만명에 달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들은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화장품을 찾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더현대닷컴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됐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에스티로더·슈에무라 등 8개 화장품 브랜드에 서비스를 도입한 뒤 향후 20여 개 브랜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가 적용되는 제품은 색깔 비교가 필요한 립스틱·블러셔·아이스도 등 20여 개 품목이며, 품목별로



현대백화점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메이크업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대백화점

## 앱 개발전문 기업 메이투와 제휴 ‘더현대닷컴 앱’에서 화장품 시연 에스티로더 등 8개 브랜드 도입 “리테일테크 실험 집중할 계획”

10~30개씩 총 400여 개의 색상을 준비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이 더현대닷컴을 활용해 리테일테크에 속도를 내는 건 1원이라도 싸고 1초라도 빨리 배달하는 최저가와 배송 속도 경쟁만으로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차별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희준 현대백화점 e커머스사업부장(상무)은 “최근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가격이 100원, 200원 쯤 것보다 재미있고 독특한 서비스와 상품을 원한

다”며 “더현대닷컴을 활용해 오프라인 유통과 IT를 융합한 새로운 쇼핑 경험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백화점이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도입한 서비스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몰이 중이다. 더현대닷컴은 지난 2016년 유통업계 최초로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VR스토어'를 선보였다. 오픈 당시 3000명 수준이던 이용 고객은 최근 1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상품을 추천해 주는 '딥 파인더(deep Finder)' 서비스를 더현대닷컴에 도입하기도 했다. 서비스 도입 후 이를 이용하는 고객은 이용하지 않는 고객보다 더현대닷컴에 2.5배 더 머무르고 서비스 재이용률도 95%에 달할만큼 호평을 얻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장미의 계절 5월, 꽃 선물 어떠세요?’

다. 5월 들어 연중 생화 매출이 가장 높은 시기인 로즈데이, 성년의 날을 앞두고 PK마켓·SSG푸드마켓은 다양한 생화 행사를 준비했다.

PK마켓·SSG푸드마켓이 장미의 계절 5월을 맞아 다양한 생화를 선보인다고 13일 전했다. /연합뉴스

# 11번가, 성년의 날 맞이 향수 80% 할인

11번가는 성년의 날(21일)을 앞두고 14일 자정부터 단 하루 동안 100여종의 인기 향수를 최대 80%까지 할인하는 특가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럭셔리 라인이라 불리는 '구찌', '크리스찬 디올' 등 향수부터 '랑방', '페라가모', '불가리' 등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아 온 스테디셀러 향수까지 가격격으로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존바바토스 아티산(75ml)은 67% 할인된 2만6800원, 랑방 에끌라드(30ml)는 72% 저렴한 1만6800원, 글로우 바이 제이로(30ml)는 79% 가격을 낮춘 1만1500원, 다비도프 콜워터 맨(50ml)은 73% 인화된 1만58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이번 기획전에서는 향수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니치 향수'도 포함됐다. 소수만을 위한 프리미엄 향수라는 뜻을 지닌 '니치 향수'는 천연향과 희소성을 강조한 제품으로 사용자의 개성까지 전달할 수 있다.

최근의 향수 트렌드와 맞물려있는 제품군이라 일반 향수보다 고가임에도 인기다. '크리드 어벤투스'(50ml) 21만 6000원에, '펜탈리곤스 오렌지 블라썸(100ml)'은 10만5000원에 내렸다.

## 롯데홈쇼핑 “짜퉁 걱정없이 명품 구입하세요”

### TIPA와 위조품 유통근절 MOU

롯데홈쇼핑이 위조품 유통근절에 나선다.

롯데홈쇼핑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본사에서 사단법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와 위조품 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병행수입상품에 대해 '업체 사전조사', '현장진단' (업체 인터뷰 및 물품 수거) 등 TIPA가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전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다. 그 결과 검증된 파트너사의 상품만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



지난 11일 (왼쪽부터)롯데홈쇼핑 이일용 방송본부장, TIPA 윤승혁 상임위원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본사에서 사단법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위조품 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롯데홈쇼핑

홈쇼핑은 위조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병행수입상품

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TIPA는 국내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2006년 12월에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위조상품의 수출입,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정보 수집, 단속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일용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은 “병행수입 규모가 증가하면서 위조품 유통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며 “TIPA와 업무협약을 통해 위조품 판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페레로그룹 ‘킨더 플러스 스포츠 패밀리런’ 성료

이탈리아 제과업체 페레로그룹은 지난 12일 가정의 달을 맞아 개최한 '제3회 킨더 플러스 스포츠 패밀리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킨더 플러스 스포츠 패밀리런'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달리는 어린이 마라톤 행사다. 이번 행사는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이 아이들의 육체적 성장 및 건강한 감성을 키워줄 뿐 아니라 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믿음 아래 어린이들의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킨더 플러스 스포츠'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킨더 플러스 스포츠 패밀리런'은 '무빙 존(Moving zone)'과 '조이 존(Joy zone)

ne)'으로 구성됐다. '무빙 존'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달리며 즐길 수 있는 1.5km 러닝 코스로 달리기와 함께 4가지 미션으로 꾸며졌다.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놀이 타인 '조이 존'에는 패밀리 요가, 종이비행기 날리기, 페이스페인팅 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작년에 이어 지누선의 멤버 '선'도 자녀들과 함께 참여했다.

특히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승민 위원이 함께 참석해 축사를 통해 가족의 달에 열리는 킨더 플러스 스포츠 패밀리런을 축하 해주었다. 유승민 위원은 탁구 국가대표를 시작으로 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했



지난 12일 '제3회 킨더 플러스 스포츠 패밀리런'이 개최됐다. /페레로그룹

으며, 얼마전 끝난 평창올림픽 선수촌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킨더 플러스 스포츠'는 페레로그룹이 자랑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어린이들이 누구나 매일 손쉽게 각종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백인영 기자



# 신창재 회장, UN 포럼서 '인본주의 경영론' 연설

## 교보생명 회장, 韓 기업인 최초 기조연설

“사람은 공기 없이 살 수 없지만 공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과 같이 기업에게 이익은 생존을 위한 연료이지만 그 자체가 경영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 ICSB(세계중소기업협회) 주최 포럼에서 한국 기업인으로선 최초로 기조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ICSB는 지난 1955년 설립된 국제단체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정책과 기업가정신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 20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연설은 ICSB가 한국의 대기업인 교보생명의 이해관계자 경영 사례와 경영철학을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신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ICSB(세계중소기업협회) 포럼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지속가능한 인본주의적 이해관계자 경영'을 주제로 한국 기업인 최초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회장을 연사로 초청하면서 마련됐다.

신 회장은 '인본주의 경영론'을 강조하며 지난 외환위기 여파로 파산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하기 위해 전사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

며 직원들과 함께 고군분투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특히 사원들이 공감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의사소통에 힘쓴 점을 경영혁신의 핵심요소로 꼽았다.

신 회장은 “기업의 비전과 전략은 사원들이 공감해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며 “비전과 전략을 널리 공유하면 사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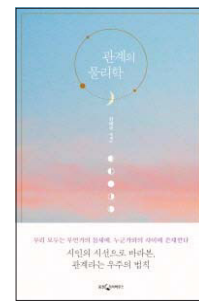
그는 강연 말미에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인본주의적 가치를 창출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기업경영은 모든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강한 주인의식을 갖고(Of the people),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며(By the people),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경영의 최종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For the people)”고 덧붙였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 새로 나온 책

### 관계의 물리학

웅진지식하우스/김태주 지음



'이 미친 그리움'과 '그토록 붉은 사랑'을 통해 깊은 공감과 잔잔한 울림을 불러일으킨, 작가 김태주가 세 번째 산문집으로 돌아왔다. 신작 '관계의 물리학'은 그만의 시적인 감수성과 아름다운 은유로 나와 당신, 우주의 사이에 대해 사유한 그의 첫 관계학개론이다.

저자는 서로의 마음에 난 길이 관계라 말한다. 그 길은 서로 간의 오해로 막혀버릴 수 있기에 건너기 어렵다. 스스로에 대한 오해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우리는 닿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길 위에서, 내 생각과 당신의 이해 속에 비친 서로를 들여다 보며 진정한 자아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 나다운 삶을 꿈꾸기 전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이유다.

'관계의 물리학' 1부 '관계의 날씨'에서는 세상에 생겨난 모든 사이들을 우주에 비유한다. 2부 '관계의 언어'에서는 사람을 읽고 또 읽는 말과 태도의 알맞음을 전한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실패했던 시인의 고백은 간간히 웃음을 자아낸다. 3부 '행복의 질량'에서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취해야 할 마음가짐, 밀도 있는 삶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대해 사유한다. 4부 '마음의 오지'는 나 자신과의 관계, 스스로에 대한 오해와 마주하며 외로움의 본질에 대해 탐구한다.

264쪽, 1만3800원

/신정원 기자 sjw1991@

## 삼표그룹 연천군 어린이 환경미술 캠프 개최

삼표그룹은 경기 연천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제2회 삼표와 그린(Green) 지구' 환경 미술 캠프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 미술 캠프에는 연천군 지역 아동 및 가족 80여 명이 참석했다.

어린이 환경 미술 캠프는 지역 아동들에게 자원을 재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학생들은 기존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식물원의 식물들을 직접 보면서 식물의 서식 환경과 보존 역할 등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나뭇가지나 잎의 자연물을 활용해 '드림 캐처'를 제작하고 '환경퀴즈', '탄소발자국계산하기' 등 환경 체험 놀이도 진행했다.

삼표는 '어린이 환경 미술 캠프' 외에도 1993년 설립한 '정인옥학술장학재단' 등을 통해 소외지역의 우수장학생과 학교에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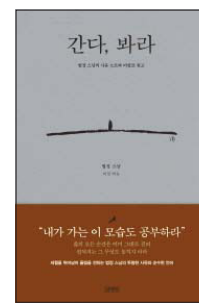
경기 포천 평강식물원에서 열린 '삼표 환경 미술 캠프'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표그룹

을 지원하는 등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간다, 바라

김영사/법정스님 지음



법정스님이 생애의 마지막 시기들을 보낸 강원도 산골 시절, 그때까지 지니고 있었던 노트와 메모, 편지, 그림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스님이 아껴둔 미발표 시와 에세이, 퇴고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육필 원고, 다양한 책에서 가장 귀한 구절만을 뽑아서 정리한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스님의 치열한 공부와 빛나는 감성이 덧붙여지면서 어느 장을 읽어도 여운이 깊은 색다른 잠언집이 탄생했다.

280쪽, 1만4500원

/신정원 기자

## 오늘의 운세 5월 14일 (음 3월 29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60년생 호운에 마음이 들며 일을 그르칠 수 있다. 72년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점검을 철저히 하라. 84년생 눈앞에 이득보다 먼 장래를 생각하라.
- 소** 49년생 원활한 일의 진행을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 61년생 걸치레 보다는 내면을 충실히 해야 손실이 적다. 73년생 공적인 일은 원칙을 고수 해야 한다. 85년생 친지의 도움으로 사업이 번창 한다.
- 호랑이** 50년생 시기하는 세력으로부터 난관에 봉착 한다. 62년생 연장자의 조언은 인생의 밑거름이 된다. 74년생 부부 화합은 마음의 대화로 하라. 86년생 재운이 있어 돈이 되는 정보나 환경이 유리하게 된다.
- 토끼** 51년생 아랫사람을 꾸중하기보다는 실수가 없도록 충고 하라. 63년생 투자기에 신경 쓰면 대어를 낚을 수 있다. 75년생 남쪽은 삼가고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 87년생 속마음을 털어놓고 진심을 보여라.
- 말** 52년생 가정에 불화가 있으니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64년생 친척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라. 76년생 ㄴ, ㄹ, ㅍ 세씨는 잠자리 머리 방향을 남쪽으로. 88년생 억압으로는 안 되니 순리대로 대처하라.
- 원숭이** 53년생 성취욕이 강해 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다. 65년생 낙심 하지 말고 의연한 자세로 참고 견뎌라. 77년생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 좋은 결과가 꼭 올 것이다. 89년생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 말** 54년생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아군은 없다. 66년생 책임지지 못 할 행동과 언사는 삼가라. 78년생 말로만 해준다는 사람은 특이하다. 90년생 이정표 없는 거리에서 방향하는 격으로 어려움이 있다.
- 양** 55년생 일의 욕심을 부리지만 성과는 적다. 67년생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베풀기도 하라. 79년생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충실함을 보여라. 91년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꼭 참고 꾸준히 분발 하라.
- 원숭이** 56년생 티끌 모아 쌓은 것을 단단계에 털어 넣는 격이다. 68년생 다양한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0년생 부족한 부분은 빨리 보충여 기회를 잡아라. 92년생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인연이 닿는다.
- 닭** 57년생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다. 69년생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말고 가정에서 찾아라. 81년생 대인관계가 성공의 비결. 93년생 명수에 숨어 있는 모이를 찾아 내는 닭의 형상이다.
- 개** 58년생 칭찬 듣는 날도 오고 행운도 잡을 수 있다. 70년생 오랜만에 가정에 편안함이 있다. 82년생 마음에 없는 일을 맡게 된다. 94년생 첫 만남은 좋았지만 날이 갈수록 갈등이 심해진다.
- 돼지** 59년생 기회가 도래 하니 힘써 움직이기만 하면 수확이 크다. 71년생 신용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자신 있게 추진하라. 83년생 부부간 더욱 신경을 써서 존재감을 느끼도록 해야. 95년생 노력보다 특이 적으니 심신이 피로하다.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2		7			4
		1				8		
9			4				2	
4		6		8			3	
	7	5			9	4		
			5					
	2	8		1		9	5	
1			4	9	3			6

						1		
			7	8		9		
	4			2				1
2		6	4				7	
3		4				8		5
	5				3	4		6
5					3			6
1				2		4	9	
			6					

스도쿠 정답								
9	8	2	6	7	5	1	4	3
5	6	9	1	4	8	2	7	3
1	7	4	3	5	8	6	9	2
8	9	7	6	2	5	1	3	4
6	5	1	8	9	2	7	3	4
4	2	5	1	7	9	6	8	3
5	1	8	7	6	1	9	2	3
7	1	9	4	8	2	5	6	3
2	6	5	9	1	7	8	4	3
5	1	4	6	9	8	2	7	3
4	8	6	7	5	2	9	1	3
7	9	2	8	1	6	4	5	3
9	2	7	5	8	6	1	5	4
5	1	8	2	9	4	7	6	3
6	4	5	1	7	9	8	2	3
1	6	4	9	2	5	7	8	3
2	5	6	7	8	1	9	4	3
8	7	9	1	4	5	2	6	3

문제 제공= 보너스



# 예술가의 삶과 무덤 속의 길



홍경안 의  
시시일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생존의 경계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예술가들의 상황을 설명하면 적지 않은 이들이 대체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으레 '그래도 행복하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예를 들면 "연간 평균 수입이 600만 원 대라는 것은 지나치게 적은데, 우리나라 작가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하네요.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삶인데다,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이니 행복하지 않을까요?"라는 식이다.

행복이란 저마다 가치와 기준이 다르기에 선뜻 정의하기 곤란하나, 분명한 건 좋아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취미와 전업의 영역이 다르듯, '좋아하다'가 '좋다'가 되고, '행복하다'가 '행복'이 되는 것 사이엔 만경창파(萬頃蒼波)가 놓여 있다.

사실 종이처럼 얇고 솜털처럼 가벼운 재주로 생산한 것을 예술의 전부로 착각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예술가는 행복하지 않다. 배우이자 연출가인 김경민도 비

슷한 애길 한 적이 있지만, 매일 예술가들을 만나는 필자 역시 예술이 그들에게 약속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을만한 행복이 그들의 삶 내부 어디에서도 쉽게 발견되지 않음을 본다.

오히려 예술가들은 예술을 이어갈수록 비탄과 암울에 젖는다. "그래, 난만의 일, 그것을 위해 내 삶을 위협에 몰아넣었고, 그것 때문에 내 이성의 절반은 암흑 속에 묻혀버렸다."는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체념처럼 어두운 불안이 쉽없이 짓누른다. 행복은 커녕 절망이 지배하고 두려움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그렇다. 무언가를 창작하는 예술가에게 예술은 그 자체로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을 말이나 글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공허한 공간 앞에서 체감하는 상실된 좌표와 무언가를 꼬집어내야 하는 막막함, 무덤 속의 평화와 진배없는 작업실의 무게감은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결코 알 수 없다.

좋아하는 일을 하니 행복할 것이라 여겨지는 예술가는 경제적 인후함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예술적'일 수는 있어도 예술은 불가능한 일부를 제외하곤 그들은 가진 것 또는 가질 것이 너무 없다. 명예, 지위, 신분 등 사회 속 모든 인색함은 거의 그들 몫이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왜 그토록 힘들

고 고통스러운 삶을 버리지 않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에 가깝다. 숙명이랄까, 한 번 내딛은 발걸음은 물리기 어렵다. 애써 빠져나갔다가도 되돌아오고, 예술이 평생 마셔야 할 독약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생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술가의 삶은 선택이 아니다. 예술의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중독된 이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운명과 기질이 부르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술가로서 있음으로써 확인된다.

이처럼 예술가가 예술인임과 동시에 현실임을 강조하기엔 대중에게 대타야 할 미주가 많은 대신, 예술가는 단지 예술가임을 받아들인 대가치곤 여러 면에서 혹독한 삶을 산다. 심지어 얼마나 가난한지 증명해야 지원을 받고, 처지의 이해가 곧 감성팔이로 치부되는 동일계 내 일부 태깅스러운 시선도 감내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변함없이 작업을 한다.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비극을 인용하자면 생과 사의 기로에서조차 예술이란 것을 한다. 남들은 잘 알아주지도 않는 예술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러니 어찌 예술가의 삶을 '천형(天刑)'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미술평론가·칼럼니스트



관광관리공단 이청룡 신임 이사장 취임 이청룡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한국관광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청룡 신임 이사장은 강원 원주교과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2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상무와 부대표를 지냈으며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삼양식품 사장, 딜로이트컨설팅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관광관리공단



한국노바티스,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11일 '제22회 노바티스 지역사회 봉사의 날'을 맞아 4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사회 봉사의 날'은 노바티스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들을 위한 마음을 전하고자 전세계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한국노바티스

# 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단상



기지수첩  
안상미  
(파이낸스&마켓부)

"현대판 음서제다. 이런데도 취업준비생에게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지 말고 어디든 도전하라고 말할 수 있나."

"은행은 주식회사다. 기업과 주주에 이익이 된다면 누구를 채용하든지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간섭이 지나치다."

지난 주말 금융권은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채용비리 검사 발표로 다시 뒤숭숭해졌다. 은행 채용비리 특별조사 당시 혐의가 나오지 않았던 신한은행마저 이번엔 비리를 입증할 몇몇 정황이 포착됐다.

올해 초 우리은행으로 금융권 채용비

리 논란이 불거진 지 몇 달이 지났다. 일부 금융사는 인사 담당자는 물론이고 최고경영자(CEO)까지 구속돼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세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젊은 층, 특히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이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신뢰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실력이 아닌 다른 무언가 때문에 취업이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들의 부모 역시 자괴감에 빠졌다. 몇 년을 취업전선에서 헤매고 있는 자식이 힘없는 부모때문인 것은 아닐까, 뒷바라지가 힘들더라도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할 때 밀어줬어야 하는 건 아닌지 후회가 된다고 했다.

반면 최근의 채용비리 검사를 지나친 간섭으로 보는 이들의 시각은 이렇다. 공

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이니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신입직원을 뽑는 것이 당연하다. 지원자의 부모가 재력가라서 은행에 거액의 몽치돈이 들어온다면, 아니면 기업체 임원이라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기도 한다.

그들의 의견을 심분 반영해 은행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 다만 조건은 있다. 투명하게 밝혀라.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입사 우대 조건: 부모 금융자산 000억원 이상, 매출 000억원 이상 기업체 임원급 이상, 자사 그룹 계열사 임원 이상 자녀는 서류 전형 면제'. 이왕이면 사업보고서에 결과도 산출해주면 좋겠다. '우대 조건에 따른 은행 순이익 00% 증가' 등으로 말이다.

/smahn1@metroseoul.co.kr



NH농협은행, 부행장 릴레이 농촌일손돕기 NH농협은행은 부행장을 중심으로 농민기 릴레이 일손돕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박철홍 여신심사부 부행장은 지난 9일 임직원 40여명과 함께 경기도 양평군 외가집마을을 찾아 옥수수 재배농가의 옥수수 심기 작업을 돕고, 하천변을 정리하며 마을환경 개선작업 등을 실시했다. 농협은행 전 임직원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전개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순수분, 준공축하 쌀 기탁식 순수분이 지난 11일 전라북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소재한 분라이프푸드랩에서 익산시에 지역 아동들을 위한 쌀을 기부하는 '준공축하 쌀 기탁식'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탁한 쌀은 익산시를 통해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 중 한 곳인 '시온육아원'은 순수분이 직접 찾아가 쌀을 전달했다. /순수분

-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정책조정과장 김준민 △행정관리과장 이상로 △국정과제관리과장 이승규 △규제총괄과장 김달원 △규제정책과장 이한형 △청렴법무과장 이상범 △교통정책과장 김희순 △사회정책총괄과장 송민섭 △안전정책과장 정은영 △시

- 민사회협력행정관 김민정 △뉴미디어행정관 양지연 △주한미군지리지지원단 정책총괄팀장 정동혁 △국민생명지킴이추진단 부단장 김규형 △국민생명지킴이추진단 총괄기획팀장 권대철
- ◆법제처 ◇고위공무원 전보 △행정법제국장 김기열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박승국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박선구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홍성호 ◇연구기획위원 △산업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종광

## 부음

▲신영식씨 별세, 신옥(프로야구 전 LG트윈스 사원)씨 부친상 = 13일 오전 7시,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02-2290-9442

## 한국은행

### 초등학교 교사 대상 경제 직무연수 실시

한국은행은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경제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하계 초등학교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정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로 한은 서울 본부에서 진행된다. 총 40명 모집을 모집한다.

경제·금융 관련 주요 이슈 및 이론 강의, 체험형 경제교육 실습 및 시범강의, 현장 체험학습 등으로 진행된다. 연수 이수 시 2학점(30시간) 인정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로 한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봉준 기자 bj35sea@



'2018 아디다스 마이드림 FC' 발대식 아디다스코리아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아디다스 코리아 본사에서 '2018 아디다스 마이드림 FC'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3일 전했다. 마이드림 FC는 2013년 시작돼 6년째 꾸준한 베이스캠프의 수를 늘리며 운영되는 아디다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아디다스코리아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206
	2002년 5월 28일 제 395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
	2017년 3월 09일 제 0049호



## 서울시교육감선거 D-30

# 진보·보수 후보간 ‘평등 vs 수월성’ 확연한 시각차

### 혁신학교

조희연 “모든학교로 확대”

박선영 “사실상 폐지”

조영달 “추가선정 중단”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마무리돼 본격적인 정책 대결이 시작될 전망이다. 각 진영은 혁신학교와 특목고 정책을 두고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권한 밖이지만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극과 극의 입장이 엇갈린다.

13일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면, 진보 진영 측의 대표정책인 혁신학교정책과 올해부터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치르는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혁신학교는 성적으로 출세유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소질과 소양에 따른 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학교혁신교육 모델로, 조희연 후보(서울시교육감)가 추진해오던 정책이다.

혁신학교는 조 후보 시절 매년 꾸준히 늘었고, 올해 200개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 후보는 공약집에서도 혁신학교 확

###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현행 존치”

“100% 추첨제 전환”

대와 함께 질적향상도 도모하겠다고 했다. 지난 9일 진보 단일후보 선출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혁신교육 3.0’ 비전을 통해 서울형 혁신학교의 질적·양적 심화와 함께 일반고등학교로 일반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보수진영 단일 후보인 박선영 후보는 혁신학교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혁신학교 학생 상당수가 기초학력 미달로 학력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혁신학교 예산 우선지원도 없애겠다고 하고 있어 사실상 혁신학교 폐지를 공약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도로 분류되는 조영달(서울대 사범대 교수) 후보는 혁신학교 확대를 막겠다는 공약을 냈다. 혁신학교 추가 지정을 중단하고 부작용으로 제기되는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 등을 우선 보완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 정책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조 후보는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외고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해오다 올해부터 일반고와 동시선발 제도로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조희연(사진왼쪽부터), 박선영, 조영달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뀌, 사실상 자사고와 외고 지원자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선거 이후에도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는 특히 진보진영 측에서 주장하는 국제중의 일반학교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자사고와 외고의 현 체제를 그대로 두고 학생 선발제도도 유지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다만 이들 학교가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은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달리 조영달 후보는 특목고를 존속하도록 하되, 학생 선발 방식을 100%

추첨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고교 입시를 전면 폐지를 공약한 셈이다. 조 후보는 지난달 19일 정책비전 발표회에서 “외고·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의 본래적 가치 추구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존속을 보장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불편 해소를 위해 추첨 등의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특히 자사고는 학교가 원하는 경우 일반고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의견차도 크다. 대입제도 개편은 서울시교육감의 권한 밖이지만, 초·중등 교육과 대학입시의 일관성이 필요한만큼 교육부-서울시교

육청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조 후보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과 수능 성적 위주 전형인 정시전형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교육부의 수능 절대평가 확대 기초와 다르지 않다. 반면 박 후보는 수능 일부 과목 상대평가인 현 체제를 유지하고, 정시 모집 인원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영달 후보의 경우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함께, 수능의 자격사화를 주장하고 있다. 조 후보는 장기적으로 대학 신입생 선발을 입학사정관제와 면접을 통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인 박 후보 외에도 2명이 단독 출마할 것으로 보여, 진보 단일후보 1명, 중도 후보 1명, 보수 단일후보 1명에 보수 진영 1~2명이 단독 출마해 4~5과전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박 후보 외에 광일전 전 미디어텍고 교장이 단일화에 불참해 단독 출마를 시사한 상태고, 앞서 이준순 대한민국미래교육연구원장이 독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지난 11일 단일후보 수락연설에서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과 힘을 합쳐 전교조 교육을 종식시키고 수렁에 빠진 서울교육을 건져내겠다”면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초·중·고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 온라인 시스템 /교육부

## 교육부 “초등학생부터 창업 체험·교육”

온라인 가상회사서 기업가 체험

그동안 대학생과 일반인 위주로 운영되던 창업 체험과 교육이 올해부터 초·중·고교로 본격 확대된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중·고 학생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체험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창업 체험·교육을 초·중등교육 단계까지 확대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인프라 구축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초·중·고 학생이나 교원 누구나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https://yeep.kr>)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의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교사에게는 창업체험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기존 중·고교 학교 단위로만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초·중·고교 학생, 교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또 ‘가상 창업체험’ 기능을 신규로 만들어, 학생들이 가상

기업을 설립해 역할에 맞는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체험교육 기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스타트업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창업체험센터’를 5곳 증설해 총 10개소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센터에서 가상현실(VR), 드론,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경험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학교 수업 기반 창업체험교육 확산을 위해, 전국 27개 창업체험교육 교사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콘텐츠 26종(EBS),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가상 체험 콘텐츠 5종을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창업교육 지원 민·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 창업경진대회와 교원 창업체험교육 우수사례 공모전도 실시한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앞으로는 도전정신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갖춘 혁신 인재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풍부한 체험을 통해 미래 혁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교수사회 고령화 심각... 60대 ↑ 64% 급증

(2012~2016)

‘신진 연구자’ 30대 교수 감소  
박사학위 취득 후 기간 길어져

교수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하며 ‘신진 연구자’인 30대 이하 교수 숫자가 4년 새 60대 이상 교수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EP)의 ‘전국대학 연구활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수는 2016년 7만4461명으로, 2012년 7만914명보다 3547명(5%) 증가했다.

2016년 전임교원을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교수가 1만3천803명으로 4년 전보다 5천387명(64%) 급증했다. 전체 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1.9%에서 18.5%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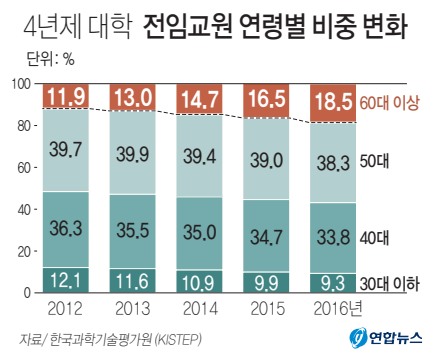
50대는 2만8536명으로 4년 새 375명(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40대는 2만5182명으로 541명(2.1%) 줄었다.

### 교육부 ‘마이스터 프로그램’ 직업계고 학생 참가자 모집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8기 IP(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6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산업현장에 반영하는 고교 단계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모델로 지난해 특히 50건 출원, 기업 기술이전 7건, 연계 채용 2명



자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EP)

신진연구자로 분류되는 39세 이하 교수 수는 2012년에는 8천614명으로, 60대 이상보다 200명가량 많았지만 2016년에는 6천940명으로 1천674명(19.4%) 급감하며 60대 이상의 절반에 불과했다.

신진연구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년 새 12.1%에서 한자릿수인 9.3%로 떨어졌다.

60대 이상과 30대 이하 교수 숫자가 크게 벌어진 것은 박사 학위를 딴 후 신입 교수가 되기까지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올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협력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현장연계과제, 참여기업이 제시한 산업현장 문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내는 ▲테마과제로 나눠 접수한다.

특히 기계기술, 전기전자, 생명·화학, 생활용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참여한 기업은 테마과제를 출제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현장 견학과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수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하면 전체 교수사회의 연구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0대 이하 교수는 1인당 연구비가 2016년 2천697만원으로 전체 평균(5천701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전문학술지에 실린 논문 수는 1인당 0.48편으로 평균(0.39편)의 123%에 달했다.

60대 이상은 1인당 연구비가 4천440만원으로 30대 이하의 1.6배였지만 SCI급 논문 수는 0.25편으로 30대 이하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전체 논문 수에서도 60대 이상은 0.64편으로 30대 이하의 0.82편에 못 미쳤다.

김소형 한국연구재단 연구위원은 “박사 학위를 딴 뒤 포스트닥터(박사후과정)를 마칠 때까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진 교원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며 “연구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도전적 연구에 적극적인 신진 연구원에 대한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하고·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으로 팀을 구성해 발명교육 누리집([www.ip-edu.net](http://www.ip-edu.net)) 등으로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달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50팀을 선발하며, 선발된 팀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지식재산권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2회의 캠프 등 발명·지식재산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최종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기업 관계자 등에게 기술이전 상담을 받도록 지원한다.

/한용수 기자



# 주말 예약 99% (2주전 예약시)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2시간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금강산오션리조트

# 595만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늘이 내린 천혜의 비경이 숨쉬는 곳  
동일전망대·화진도·송지호와 금강산 비경을 간직한 곳  
하루를 머물러도 안락함을 느낄수 있는 리조트로 초대합니다.

※ 고성 실제 전경입니다.

\* 분양 하계 휴양소, 연수 문의

**02)541-0113**

24시간 상담 (공휴일 상담 가능)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아시아 경제 신문 리조트 부문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동해안 고성에 위치한 금강산 오션리조트는 국내 바닷가 리조트 가운데 바다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동해 비치리조트로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변에서 해수욕과 바다낚시, 등산 등 각종 레포츠를 즐길수 있고 힐링 휴가를 즐길수 있는 동해안 휴양지로 거품을 뺀 가격에 분양중이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기제 분양으로 평생 이용이 가능 하며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페밀리형 53㎡ 595만원, 스위트형 99㎡를 795만원, 로얄스위트형 165㎡ 1,395 만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어 타입체와 비교해 실속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품을 완전히 제거 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착순 마감한다. 더구나 선착순 30

명에게는 무료숙박권 10매 해수사우나 이용권 30매를 증정 한다니 관심 가질만 하다.

또한 제주도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위하여 제주도내 제휴된 골프장 5곳을 준회원 자격으로 사용가능 하고 필리핀 세부 중국 청도 일본 니가타 말레이시아에 골프와 리조트를 회원 대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오션리조트는 100%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제로만 분양을한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직영 리조트인 동해 리조트와 제주 리조트 외에도 도고 나주 지리산 경주 설악 덕구 등 전국 8개 지역에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다. 금강산오션리조트 정회원이 되면 가입과 즉시 가족 카드 5매가 발급되어 가족 친지들이 함께 연간 30일을 정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 가입시에는 무기명 카드가 제공되어 사원 후생 복지로

사용가능 하다. 위치가 동해안 고성 바닷가에 위치하여 여름 휴가시에 인기가 좋아 창을 열고 나르면 바닷가 백사장으로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분양 가격의 반값으로 동해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별장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입급 선착순으로 바닷가 객실을 우선 배정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다.

문의: 02)541-0113 신청금 100만원

기업은행 244-025348-04-029 (주) 미봉

금강산오션리조트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 사용과 관광진흥법상 적합한 등기제로 분양합니다.



제주리조트

## 일본 니가타 골프 창립 회원 모집

그린피, 온천 무제한, 골든우드+청광아이스.C.C 창립회원 모집, 동부해발 600m 고원지대

올포함 중식 별도  
7박 9일 답사라운딩 **149만원**

**회원혜택 (495만원)**

- ◆ 천연온천 무제한 무료 / 2곳 골프장 그린피 무제한 무료
- ◆ 골프장에서 회원증 발급 / 10년 만기후 연장가능
- ◆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중국 골프장 회원혜택

해발 1,300m  
일본 마다라오 탕그램 4일 **119만원 ~**

아시아나 항공 이용  
일본 북해도 루스츠 4일 **119만원 ~**

일본 고마츠 가타야마츠 4일 **139만원 ~**

매주 목요일 출발  
아와지 스프링스 4일 **139만원 ~**

매주 목요일 출발  
사이판 라오라오베이 5일 **80만원 ~**

매주 목요일 출발  
위해 호당가 3일 **599,000원**

골프 + 관광  
몽골 울란바토르 **3박 169만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5월 3일 단 1회 출발  
보르네오.C.C **5일 99만원**

IL tour 골프 특가	태국	중국 중국 및 한국 연휴 별도 문의	[국내골프] 5월요금
필리핀	* 카오야이 파노라마 1박 80,000원	* 웨이하이 포인트CC 3일 129만원	* 여수 경도 1박2일 34만 5천원 ~
* 마닐라 갈라라얏 1박 6만원	* 베스트오션CC 1박 80,000원	* 연태 단형.C.C 4일 649,000원 ~	* 웰리힐리 1박2일 24만원 ~
* 마닐라 스포랜드 1박 5만원	* 워터빌CC 1박 80,000원	* 곤명 윈드밸리CC 5일 129만원	* 전남 보성 1박2일 17만 5천원 ~
* 마닐라 KC힐크레스트 1박 2만원	* 힐사이드CC 1박 50,000원		* 현대더링크스 1박2일 21만 7천원 ~
* 세부 인터내셔널 1박 4만 5천원	* 방콕 다이내스티 1박 80,000원		* 용평 버치힐 1박2일 24만 5천원 ~
* 클락 뉴아시아 1박 7만원	* 방콕 시내 4석 골프 1박 120,000원	일본 일본 및 한국 연휴 별도 문의	
		* 미야자키 니치난 3일 629,000원 ~	

IL tour 문의 **02-541-4242**

## 원적외선 웰빙 사우나

건강, 스트레스, 성인병, 미용, 수험생을 위한 실내 사우나

캐나다산 적삼목 원적외선효과 자동온도조절 인체공학적인설계  
2인용 365만원

5~6인용

- 세포재생 및 혈액순환 향상
- 인체항균작용 및 성인병 치료 효과
- 체중조절 효과 및 운동부족 해소 효과
- 영양분해 공급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농막, 캠핑 하우스  
24시간 상담 가능  
**리치하우징 문의: 1544-6299**



# 일상 속 '행복' 찾는 현대인에 휴식을 선물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 '행복'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이 되어주는 특별한 전시회를 소개한다. 디뮤지엄의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를 비롯해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 기념 기획전시가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안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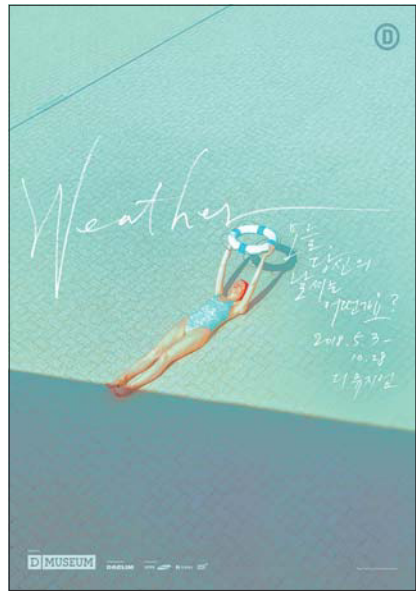
## ◆날씨가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

디뮤지엄(D MUSEUM)은 5월 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날씨의 다양한 요소를 사진, 영상, 사운드, 설치작품을 통해 감각적으로 경험하면서 날씨에 대한 감수성을 확장하는 전시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를 개최한다. 전시는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의 요소들을 매개로 작업해 온 세계적인 아티스트 26명의 다양한 시선이 담긴 1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독창적 미감을 보여주는 사진부터 촉각과 청각을 극대화한 설치작품까지 다양한 작품이 관객을 맞이한다.

총 세 개의 챕터 '날씨가 말을 걸다' '날씨와 대화하다' '날씨를 기억하다'로 크게 나뉘어 전개된다. 각 챕터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여섯 가지 이야기가 담겨 마치 한 권의 수필집을 읽는 기분이 들게 한다.

'날씨가 말을 걸다'에서는 날씨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들을 다채로운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만나게 된다.

'햇살' 섹션에서는 사랑하는 이들과 나른한 햇살 아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아날로그 카메라로 기록하는 마크 보스윅(Mark Borthwick)과 올리비아 비(Olivia Bee), 마틴 파(Martin Parr)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 디뮤지엄 Weather 전시회

날씨에 대한 다양한 시선 담아내

세 개의 챕터로 전시돼 흡입력 높여

'눈, 비' 섹션에서는 요시노리 미즈타니(Yoshinori Mizutani)가 구현한 여름날 내리는 포근한 눈과 같은 초현실적인 이미지들을 감상할 수 있다. '어둠' 섹션에서는 마리나 리히터(Marina Richter)의 작업과 더불어 짙은 어둠과 아련한 밤의 서사를 탐구하는 작업들이 전시된다.

'날씨와 대화하다'에서는 시각, 촉각, 청각 기반의 작품들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며 날씨에 관한 감각을 확장할 수 있다. 계단을 따라 2층에 오르면 하늘의 존재를 문득 깨닫는 순간에서 오는 설레임에 주목한 이은선의 작품을 시작으로, 인공적인 염료나 물질로서의 색이 아닌 자연현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푸르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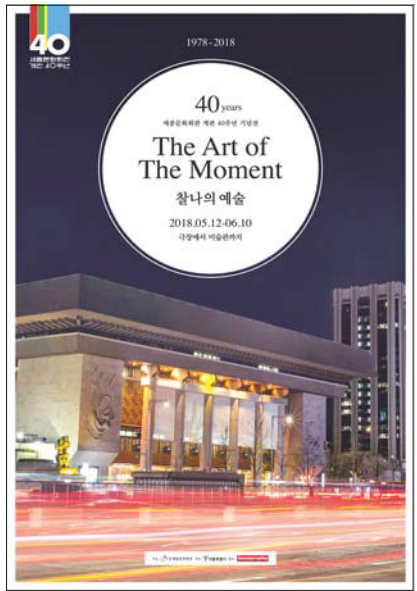
## 세종문화회관 40주년 특별 전시

시대별 서울의 모습 만날 수 있어

문화회관 40년 역사를 사진전으로

관한 '파랑' 섹션에 도착한다. 특정시간대의 공간과 빛, 파란 그림자 등의 분위기를 섬세하게 제시하는 마리아 스바르보바(Maria Svarbova)의 시리즈는 관객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시시각각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뒤이어 구름과 안개의 시각적, 촉각적 감각을 다루는 '안개' 섹션에서는 관객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안개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사운드 디렉터 홍호선과 라운 레코드가 채집한 빗소리를 들으며 30m 길이의 전시장을 걸을 수도 있다.

'날씨를 기억하다'에서는 다섯 작가의 기억 속 날씨가 어떠한 감정과 형태로 자리 잡는지 엿볼 수 있다. 주변의 사



물들에 빛, 바람을 투영시켜 풍경을 기록하는 울리히 포글(Ulrich Vogl)의 설치부터, 야리 실로마키(Jari Silomaki), 김강희, 알렉스 웹 & 레베카 노리스 웹(Alex Webb & Rebecca Norris Webb) 부부의 사진을 페이지 넘기듯 이동하며 만날 수 있다.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를 접한 관객은 내면 어딘가에 자리한 날씨에 관한 기억과 잊고 있던 감정을 새롭게 꺼내보게 될 것이다.

◆개관 40주년 세종문화회관의 기획전시 세종문화회관은 올해 개관 4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전시를 준비했다. '세종아트페스타' 행사가 이루어지는 기간(9~15일)에는 세 개의 기획전시가 준비된다. 미술관 1,2관에서는 '유유산수\_서울을 노닐다' 전시가 12일부터 진행되고, 세종홀 로비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의 40년을 보여주는 사진전 '찰나의 예

술-극장에서 미술관까지'가, 야외공간에는 미디어 퍼포먼스와 야외전시 '공간'의 간극 Space+Gap'을 만날 수 있다.

'유유산수\_서울을 노닐다'에서는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산수와 풍경을 모았다. 작가들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약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서울을 주제로 그려진 작품들이 출품된다. 소정 변관식의 '설경(둔암동풍경)', 이응노 화백의 '당인리발전소', '한강풍경', 조각가 문신의 '서대문풍경', 박노수의 소나무뒤로 보이는 '서울시가지' 등 옛 서울의 정취가 물씬 담긴 작품들을 통해 서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살필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이 소장한 혜촌 김학수의 한양전도 8폭 병풍과 최덕후의 서울시 경관 두 점의 작품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시대마다 달라지는 서울의 모습과 작가들의 다양한 해석을 함께 만나 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12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된다.

'찰나의 예술\_극장에서 미술관까지'는 세종문화회관의 4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나는 사진전으로 6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재단법인 이후 서울역사박물관에 보관중인 사진 중에 70~80년대 해외 초청 주요공연사진과 9개 예술단의 그동안의 주요 공연사진, 2002년 월드컵 등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광장의 역사사진 등 300여점의 사진이 전시될 예정이다. 공연 퍼포먼스의 명장면과 지난해 촛불집회의 감동적인 순간을 담은 사진은 함께한 사람들의 추억을 불러모을 것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 바늘꽃

삶의 어두운 터널도 있었기에 지금의 순간이 봄빛 세례를 받는 꽃처럼 눈물 나도록 아름답습니다

/고흥근 작

## '전주국제영화제' 역대 최다 매진... 성황리 폐막

284회차 매진·관객 8만200명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역대 최다인 284회차 매진, 총 관객 수 8만200명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역대 최다 회차 매진을 기록한 작년보다도 5회차가 늘어나 총 284회차 매진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고, 총 관객수가 사상 처음으로 8만명을 돌파하여 최고치 경신과 함께 성대한 막을 내리게 됐다.

기존 최고 기록인 18회 때의 279회를 경신했음은 물론, 총 관객 수도 기존 최고 기록인 18회 때의 7만9107명을 넘어서 8만200명을 동원했다. 올해는 총 45개국에서 온 241편(장편 197편, 단편 4편)의 작품이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 5개 극장 19개관에서 상영됐다. 개막작 '아기니쿠 드래곤' (정의신), 폐막작 '개들의 섬' (웨스 앤더슨)을 비롯하여 국제경쟁 대상작 '상속녀' (마르셀로 마르티네시), 국제경쟁 작품상 '머나먼 행성' (서번 미즈라히), 아시아영화진흥기구 NE TPAC상을 수상한 '어른도감' (김인선) 등이 전 회차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 전주 돔은 지난해보다 환기시설을 확충하고 냉·난방기를 증설하여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했다. 무엇보다 영화 상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운드 시

스템을 비롯해, TFS텐트 안의 울림 현상을 해결하고 공간에 비해 규모가 작았던 스크린을 확장해 보다 나은 상영환경을 조성하여 전주국제영화제의 랜드마크로 안착했다. 전주라운지와 영화의 거리 일대의 행사공간에는 기념품 숍, 먹거리존, 버스킹 존, 프리마켓 등 방문객을 위한 축제다운 콘텐츠들이 가득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모바일 예매를 도입했다. 일반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예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 게다가 지난 해 고객 불편사항으로 수면 위에 울렸던 '서비스존' (물품보관, 휴대폰 충전, PC존 등)은 확대 운영되었으며, 편의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원선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14일

음력 : 3월 29일

수도권 날씨

26 ~ 1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24 | 해질 / 19:33

연천 11/26

동두천 11/27

가평 10/27

양평 10/27

용인 12/26

평택 10/27

백령도 11/16

파주 10/26

인천 13/22

수원 12/2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스포츠 한줄 News

- ▲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2018 첫 국제대회인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1주차 경기를 위해 13일 중국으로 떠났다. 대회는 총 5주간 열리며 한국은 15일 오후 5시에 벨기에와 대회 첫 경기를 갖는다.
- ▲ 류중일 LG 트윈스 감독이 타율 0.384(73타수 28안타)로 좋은 타격감을 자랑하는 외야수 이형종에 대해 "빠른 공에 잘 적응하고, 도망가지 않는다. 타격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칭찬했다.
- ▲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3연타석 삼진을 포함해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올해 한 경기에서 삼진 3번을 당한 것은 세 번째다.

- ▲ 오승환(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보스턴과 홈경기에서 7회초 2사 2루에 등판해 1⅓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 2탈삼진으로 막았다. 이를 연속 보스턴 타선을 완벽하게 제압한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1.56에서 1.45로 낮아졌다.
- ▲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디종에서 활약 중인 권창훈이 릴과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11호골을 터뜨렸다. 같은 리그앙의 투루아에서 뛰는 석현준은 선발로 70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으나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다.
- ▲ 트레이 힐만 SK 와이번스 감독이 양철 산체스를 16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전에 올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산체스는 12일 LG 트윈스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으나 경기가 취소되면서 불발됐다.





[르포] 영등포 중흥 S-클래스 견본주택 가보니 08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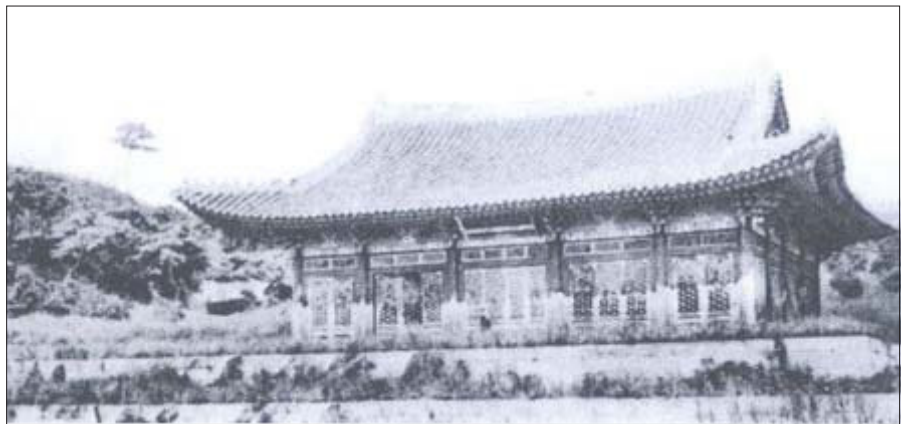
[유행] 현대백 증강현실 메이크업 서비스 도입 11



# 일제가 허문 경희궁, 언제 복원되나... 사업 다시 원점으로



1907년 경성중학교를 짓기 위해 헐리는 경희궁.



경희궁 입구인 승정전의 옛모습.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 복원사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 발표한 '경희궁지 종합정비 계획사업'을 뒤엎고, 기본계획 재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현재 경희궁 복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종로구청에 의뢰해 '기본 계획의 재수립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4월 경희궁지 종합계획의 연구 용역에 착수해 다음 해 1월 경희궁지 종합정비 계획사업을 발표할 바 있다.

당초 경희궁지 종합정비 계획사업은 단기(2013~2022년), 중기(2023~2035년), 장기(2035년 이후~) 세 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었다.

이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2년까지 ▲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철거 ▲돈의문 복원 ▲방공호 구조보강 활용 ▲성곽 및



경희궁 전경.

## 2013년 서울시 발표 내용 뒤엎고 기본계획 재수립 연구용역 착수

## 종합정비 계획 추진되지 않아 사업 성과 없이 5년 허송세월 다시 검토해 계획 재수립 예정

담장 복원 ▲편전(흥정당), 침전(회상전, 응복전) 복원 ▲흥화문 이전 복원 등이 완료돼야 한다. 2015년까지 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철거와 돈의문 복원을 완성한다는 계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희궁 복원과 관련해 "위원회를 결성해 전문가와 이해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이를 수렴해 향후 구체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희궁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의해 궁궐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일본군은 1907년 경희궁 안에 통감부중학교인 경성중학교를 세웠다. 승정전, 회상전, 흥정당, 흥화문, 황학정 등의 전각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고, 부지 2만5000평에 전매국 관시(조선총독부 소속의 관청)를 지었다.

시는 1985년부터 경희궁 복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02년 1차 복원공사를

통해 경희궁 입구인 흥화문과 승정전, 왕의 집무실 자정전과 회랑(복도), 어진을 보관하는 태령전 등을 복원했다.

2차 복원공사에서는 일본군이 미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경희궁 내에 만든 방공호를 철거하고 왕의 침전인 응복전과 회상전 등을 복원할 예정이었지만 2004년 전면 중단됐다.

시는 지난 2013년 약 10년 만에 경희궁 복원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희궁지 종합정비 계획은 단 1건도 추진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부터 기본 계획을 다시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국, 경희궁 복원 사업은 성과 없이 5년을 허송세월한 셈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종로구 관계자는 "경희궁 정비 계획을 세운 후 시간이 꽤 지났다"며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두툽한 회에 튀김까지... 고급 식재료로 만든 도시락



5·9호선 여의도역

## 천상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여의도역은 국회의사당과 각 정당의 당사, 증권가 등이 모여 있어 정치와 금융의 중심지로 통한다.

1일 평균 승하차인원은 5호선 약 4만 7280명, 9호선 약 8만 4430명 정도로 수많은 직장인들이 오가고 있어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으로 꼽히기도 한다.

여의도역은 여의도공원을 중심으로 '동여의도'와 '서여의도'로 구분되는데 두 곳 모두 입맛 까다로운 직장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맛집이 존재한다.

지하철 5호선 5번 출구에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스키전문점 '천상'은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모여 있는 '동여의도' 맛집 중 하나다.

점심시간에는 돈가스와 카레 등 다양한 일본풍의 음식을 단품 또는 실속 있는 메뉴로 구성된 정식의 형태로 즐길 수 있다.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7 부국증권빌딩 지하 1층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2시(월~금), 브레이크타임 오후 2시~5시. (토·일·공휴일 휴무)



천상벤또정식.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이곳에서 가장 즐겨 찾는 메뉴는 '천상벤또정식(1만 8000원)'이다.

고급 도시락으로 제공되는 정식의 메뉴는 격식 있으면서도 알차게 구성된다.



김치치즈돈가스.

메뉴 하나하나 고급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1일 20개 정도만 판매되는 한정메뉴이기도 하다.

먼저 두툽하게 썰어낸 연어와 광어, 참치 등의 회가 각 2점씩 6점이 나오고 여

기에 갓 지어낸 흰쌀밥, 바삭하게 튀겨낸 돈가스와 감자샐러드, 계란찜, 미소된장국, 해초샐러드와 닭강정 등 2종류의 식전 반찬 등이 쟁반 위에 정갈한 구성으로 차려진다.

자주 찾는 손님들을 고려해 식전 반찬은 일주일에 2~3번 종류가 바뀐다.

두 번째 인기메뉴는 '김치치즈돈가스(1만 4000원)'다.

전날 작업해 둔 돼지고기 등심은 두툽한 사이즈로 길게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튀겨낸다. 여기에 볶음김치와 치즈가 조화를 이루고 밥과 미소된장국, 계란찜과 샐러드, 반찬 등을 곁들여 낸다.

세 번째 인기메뉴는 '김치우동정식(1만 3000원)'과 여름시즌 메뉴인 '냉소바 돈가스세트(1만 5000원)'다.

먼저 김치우동정식은 우동떡볶이에 볶음김치, 우동, 먹기 좋게 잘라진 돈가스 등을 담아낸다. 정식 메뉴이므로 밥과 샐러드, 계란찜 등이 역시 함께 제공된다.

저녁이면 꼬치나 탕, 가라야게(튀김 반죽을 얇게 입힌 일본식 튀김요리) 등을 안주로 간단하게 술 한 잔 하려는 손님들로 분위기가 바뀐다. 명란계란말이와 가게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수제고로케 등은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품질을 자랑한다. /김미영 객원기자 may424@hanmail.net



# SAMSUNG

# Galaxy S9 | S9+

## 세상을 열다 다시 새롭게

볼 수 없던 순간까지 담은  
|슈퍼슬로우모션|



\*촬영 효과는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당 960 프레임의 속도로 촬영해 강아지가 움직이는 찰나의 순간 뿐 아니라 아이의 표정, 폭죽을 터트리는 순간 등 너무 빨라 포착할 수 없었던 일상의 장면들을 의미 있게 담을 수 있습니다

\*피사체와의 거리, 밝기 등 환경에 따라 실 사용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슈퍼 저조도

어두운 밤에 잘 보이지 않던 인물의 모습도 슈퍼 저조도로 촬영하면 더 밝고 선명하게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 AR 이모지

한 번의 셀프샷으로 간편하게 나의 이모지를 생성하면 나를 닮은 다양한 표정의 이모티콘으로 친구들과 더욱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 빅스비 비전 2.0

원하는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새로운 방법 카메라를 대는 것만으로 외국어로 작성된 문구가 한국어로 번역됩니다

\*네트워크 연결 및 삼성 계정 가입이 필요하며 삼성이 제공하는 언어만 번역 가능

[특별 보상] S9 구매하고 특별 보상 대상 휴대폰 반납 시 중고 시세 + 최대 10만 원 추가 보상 갤럭시 S9을 만나볼 절호의 기회 (2018. 03. 09 ~ 06. 30)

\*특별 보상은 일부 기종에 한정됩니다 \*최종 보상금액은 반납 시점 및 반납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고 시세는 제휴 매입사 기준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특별 보상 혜택 : www.samsung.com/sec/galaxys9/trade-in)